

우먼즈

Vol. 2131
APR 17 / 2026

BEFORE **AFTER**

Monthly rental income generated with a "5% down payment" plus asset value appreciation: a "triple windfall".

yard, leaving it idle is a loss.

Alabaster CONTRACTING

〈특별 기획-ADU〉
"잠자는 마당, 놔두면 손해"
'5% 다운페이로 만드는 월세 수익, 자산 가치 상승까지' '트리플 호재'
알라바스터 컨트랙팅, "지금 안 하면 손해인 이유, 데이터로 증명"

1부에서 ADU의 개념과 기본적인 준비 사항을 다뤘다면, 2부에서는 왜 지금 당장 워싱턴주 토지주들이 움직여야 하는지, 그리고 알라바스터 컨트랙팅 (Alabaster Contracting)이 제안하는 실질 수익 모델의 실체를 집중 조명한다. ▲문의: (206)206-3545, (206)512-0959

몽골 직수입 최고급 순모 **SLEEPING CAMEL**
특상급 명품 쌍봉낙타 순모

Premier Wool
VVIP 고객들의 재구매율 1위 제품

타코마: 253.227.8586
페더럴웨이: 253.232.9277
린우드: 206.670.8654

2027년 통합업소록과 함께하세요

**통합한인
업소록
리스팅
광고접수**

www.haninsosik.com

문의 : 206-779-5382

I'm on your side!

집이나 비즈니스 사고 파산과
관련한지 편안하게
연락하십시오.
크게 어려움을 위해서
희생을 다하겠습니다.

Real Estate Broker MiMi Kwon
mimibestchoice@gmail.com

권미경 253.335.5301

2505 S. 320th St, #205, Federal way, WA 98003 2702 S. 42nd St Suite 205, Tacoma, WA 98409
3400 188th St SW, Suite 540, Lynnwood, WA 98037 18400 Southcenter Parkway, Suite 502, Seattle, WA 98148

유명 스킨케어
Famous Skin Care

- * 각종 최신장비 (Hifu, 올세라, 소노, 물방울 리프팅 등)
- * 자연스러운 반영구 눈썹 아이라이너 (남·여)
- * 검버섯 쥐뿔, 사마귀 등 피부트러블 해결
- * 체험으로 느끼는 환상 맞사지

30816 Pacific Hwy, S, Federal Way, WA 98003 미국의사 MD.Alan
253.306.4268 보톡스, 필러, 콜라겐
백옥주사, 윤곽주사

THE ONE LOGIS (www.theoneologisllc.com)

하나통운

후회없는 선택, 꼭 비교해 보세요!

위싱턴주 최대 한인운송업체 / 한인이사인력 운영

• 택배 • 이사 • 수,출입운송 • 창고보관 • 자체 통관사 운영

253-872-8181

친절과 정성으로
당신의 치아를 책임집니다.

이영우 치과

YOUNGS FAMILY DENTISTRY
253-839-0660
30821-14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 CEREC Same day crowns
크라운 당일 완성
- Invisalign braces
투명교정
- Implants
임플란트

새환자 특별
전체 검사 및 x-rays \$70

Visa, Master Card 취급
무보험 및 65세 이상 할인혜택
모든 Major 보험 취급

진료시간
월 8:30-5:00 화 8:30-5:30
수 8:30-6:00 목 8:30-5:30
금 예약
Lunch 1:00-2:00

www.FederalwayMyDentist.com



WASHINGTON
Education Institute



워싱턴 학원



**[애프터 스쿨 (Kindergarten ~ K8)
진학반 (K9 ~ K12)]**

- ✓ 15,000 sf : 20개 교실
- ✓ 학교픽업 서비스 (스쿨버스운행)
- ✓ 주 5일수업
- ✓ 방학 프로그램
- ✓ 특별활동
- ✓ 간식제공
- ✓ 선착순 예약 (정원이 차면 대기)
- ✓ 외국어교실



**English
Math**



**K-POP
D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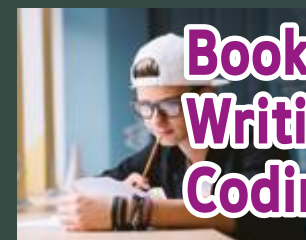
**School Bus
Pickup**



Music



Art



**Book Club
Writing Club
Coding**

**15405 SE 37th St
Bellevue, WA 98006**



(425)520-0221
washingtoneducationinstitute.com

2025년 세금보고 시즌입니다.

**사업주 여러분,
2025년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버텨온 시간이 있었습니다.
관세의 부담, 예측할 수 없는 국제 정세,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고물가 속에서도 사업을 지켜내기 위해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지는 마음,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시장의 흐름,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현실 속 불안과 긴장 속에서도 여러분은 늘 자리를 지켜오셨습니다.

누군가는 숫자로 결과를 이야기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잠 못 이루던 밤과
쉽게 내려놓을 수 없었던 책임이 조용히 쌓여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하루는 늘 선택과 결단의 연속이었고,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오늘의 사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자리까지 지켜내신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지금은 단순한 세금보고의 시간이 아니라, 지난 한 해의 노력과 희생을 정리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많은 절세를 통해 노후에는 더욱 안정되고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비즈니스 전문

절세 전문가, 회계사, 변호사들이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J&J 세무 회계법인 로펌

1201 PACIFIC AVE 600, TACOMA, WA 98402
OFFICE: 253.203.3137(8) / 253.400.7586

서정자 라디오한국 사장, '빛나는 이화인' 영예

전 세계 이화 동문 중 5명 선정...한인사회 60년의 목소리, 시애틀서 결실 67년간 한 길 걸어온 방송인 삶과 미주 한인사회 공로 집약된 결과로 평가

서북미 한인사회의 대표 언론인 라디오한국의 서정자 사장이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가 수여하는 제11회 '빛나는 이화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상은 전 세계 이화여대 동문 가운데 단 5명만을 엄격히 선발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시상식은 오는 5월 29일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수상은 67년간 한 길을 걸어온 방송인의 삶과,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공로가 집약된 결과로 평가된다. 1940년생인 서 사장은 이화여대 법학과(1963년)를 졸업한 뒤 KBS 성우 4기로 방송계에 입문했으며,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한인 방송의 새로운 역사를 개척했다.

특히 1965년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 밖 세계 최초의 한국어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며 '해외 한인방송의 효시'를 열었고, 1970년에는 미국 최초의 독립 한국어 라디오 채널을 설립하는 등 선구적 행보를 이어왔다. 이후 1997년 워싱턴주 페더럴 웨이에 '라디오한국(Radio Hankook)'을 개국해 현재까지 운영하며 서북미 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사회의 중심 언론으로 자리잡았다. 서 사장은 올해 87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직접 프로그램 '상쾌한 아침입니다'를 진행하며 현역 방송인으로 활동 중이다. 인터넷과 정보 인프라가 부족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24시간 한국어 방송을 통해 이민자들의 외로움

을 달래고 정보를 제공해 온 공로는 한인사회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기여도 두드러진다. 매년 어려운 한인 소상공인을 선정해 무료 광고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유튜브 라이브를

도입해 '보이는 라디오' 형태로 전 세계 청취자들과 실시간 소통을 확대하는 등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 같은 공로로 서 사장은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해외 한국어 방송 대상), 2021년 민주평화통일자

문회의 의장 표창을 받았으며, 2019년에는 미국 대통령 자원봉사상 금상을 수상했다. 특히 페더럴웨이는 그의 공로를 기려 매년 10월 1일을 '라디오한국의 날'로 지정하는 이례적인 영예를 부여하기도 했다. 추천을 맡은 시애틀 이화여대 동창회는 "서정자 동문은 세계 최초 해외 한인방송을 개척한 선구자이자, 60년 넘게 동포사회의 목소리가 되어온 이화의 자랑"이라며 "한국어와 문화를 지켜온 문화적 가교로서의 역할까지 인정받은 결과"라고 밝혔다. 지역 한인사회에서도 축하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인 언론계에서는 "서정자 사장의 수상은 개인의 영예를 넘어, 미주 한인 방송의 역사와 가치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상징적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빛나는 이화인'상은 이화여대 총동창회가 동문들의 탁월한 업적과 사회적 기여를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매년 국내외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동문들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미디어한국 박재영 기자)

미시컬보석

각종 고급 보석



253-632-3399
253-839-1613

영업
시간

7day OPEN
월-토 11AM-7PM
일 12PM-5PM

페드럴웨이 커몬스몰 내(Inside) (1906 S. Commons, Federal Way, WA 98003)

페드럴웨이
커몬스몰 안 (Inside)
(구 씨택몰)

주얼리 SALE
40% OFF

금 최고가에 삽니다!

10K, 14k, 18k, 순금, 백금

최고가 보장

다이아 구입시 즉석 세팅 무료

반지 구입시 즉석 사이조수리 무료

- GIA/EGL 기타 다이아몬드 취급
- 결혼예물, 보석 수리 및 세공
- 즉석 DIA 세팅
- 1 Hour 주얼리 리페어
- 각종 브랜드 시계 배터리 교환 및 밴드 사이징

다이아몬드 / 에메랄드 / 사파이어 / 루비 / 남양진주 / 오팔 / 컬러 스톤 / 24K돌반지 / 애기팔찌 / 이태리 체인

“빅뱅 이즈 백! 20주년 이제 막 시작”...美 코첼라서 뭉쳤다

팀 무대는 9년만... ‘거짓말’ 등 히트곡·솔로곡 열창

“여기까지 오는 데 참 오래 걸렸어요. ‘비 투더 아이 투더 지 투더 뱅’ (빅뱅) 이즈 백!” (지드래곤)

올해 데뷔 20주년을 맞은 그룹 빅뱅이 13일 미국 대형 음악 축제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트 페스티벌’ (이하 코첼라) 무대에서 화려하게 귀환했다.

이들이 빅뱅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공연을 펼친 것은 지난 2017년 일본 도쿄 돔과 서울 고척스카이돔 등에서 열린 ‘라스트 댄스’ (LAST DANCE) 투어 이후 9년 만이

다. 지드래곤은 “빅뱅 20주년 이제 막 시작됐다”며 “엄청나게 큰 것들이 오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20주년 성인식도 곧 재미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성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이 순간을 너무 오래 기다려왔다”며 “코첼라’는 처음인데 오늘 밤을 잊지 못할 순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태양도 “오늘 기분이 어떠시냐. 즐기고 계시느냐”며 “저희 노래를 따라 불러 달라”고 호응을 유도했다.

빅뱅은 지난 2006년 데뷔해 ‘거짓말’, ‘하루하루’, ‘마지막 인사’, ‘루저’ (Loser) 등 히트곡을 잇달아 내놓으며 K팝 2세대 최정상 그룹으로 활약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4월 ‘봄여름가을겨울’을 마지막으로 빅뱅으로는 신곡을 내지 않았다. 다만 지드래곤, 태양, 대성 세 멤버가 서로의 솔로 콘서트에 게스트로 출연하거나, 2024년 엠넷 연말 대중음악 시상식 ‘마마 어워즈’에 함께 출연하며 우정을 이어왔다.

멤버들은 20주년을 맞아 팀 활동 재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 왔고, YG엔터테



그룹 빅뱅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트 페스티벌’ 무대. 코첼라 유튜브 캡처

인먼트와 손잡고 글로벌 투어 계획도 발표했다. 지드래곤, 태양, 대성은 이날 ‘코첼라’ 무대로 ‘완전체 빅뱅’의 복귀를 전 세계에 알렸다.

우먼즈
당신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우먼즈
발행인 박재영
편집국 206.779.5382 광고국 206.779.5382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Womans No.1 is published by MS Media Group Corp.,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on every Friday.

워싱턴주 오직 외길 25년 - 뿌리가 깊은 장인정신

장수돌침대

JangSoo Stone bed

타코마 부한프라자 내
253-582-2984

다양한 침대, 쇼파 전시

GLOBAL REAL ESTATE EXPRESS • Hotel • Motel • Commercial Properties

부동산의 좋은 이웃
Good Neighbors in Real Estate

Commercial 건물, Lot
Asking \$900,000

Gas & Grocery with Property
Asking \$1.5M + Inventory
Commercial Lot 건물 신, 증축 가능
Lakewood, 한인타운

Commercial 상가 8 Unit
Asking \$2.7M, 6 Cap.
Tacoma

이상규 Sang Kyu Yi Hotel, Motel 상담 환영 /Broker

206-612-8962 | 253-988-4949 | real4949@gmail.com
www.globalreexpress.net 8544 S. Tacoma Way Suite B, Lakewood, WA 98499

재계약 고민? 딱 1시간

‘마의 7년’이라고 한다. 7년을 넘기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진 그룹이 많다. 멤버 간의 불화나 한 명에게 쏠린 인기, 무너진 팀워크 등 이유는 다양하다. ‘7년 징크스’란 말도 같은 맥락이다. 이겨낸 팀은 다르다. 20년 넘게 쪽쪽 가기도 한다. 최근 재계약을 맺은 투모로우바이투게더(투바투)는 가장 큰 고비를 넘긴 셈이다.

재계약 후 첫 컴백 앨범을 냈다. 미니 8집 ‘7TH YEAR: 가시덤불에 잠시 바람이 멈췄을 때’다. 소년의 성장을 노래하던 투바투가 이번엔 ‘사랑’을 들고 왔다. 투바투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열린 미니 8집 ‘7TH YEAR: 가시덤불에 잠시 바람이 멈췄을 때’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데뷔하는 심정으로 활동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관심은 재계약에 쏠렸다. 놀랍게도 재계약 앞에 의견이 모인 시간은 단 한 시간이었다. 태현은 “멤버들끼리 의견을 조율하는데 한 시간이 안 걸렸다. 팀으로 활동하려는 마음이 컸다. 멤버들끼리 ‘당연히 할 거지? 해야지?’라고 물어봤다. 너무나 빨리 서로 마음 알게 됐다”며 “팬들에게도 7년이 되기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보다 미리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았다. 덕분에 수빈이 형이 콘서트에서 멋지게 얘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빈도 거들었다. 그는 “주변에서는 회사와의 조율보다 멤버들 간 조율이 힘들다고 했는데 한 시간 내로 조율해서 많이 놀랐다고 들었다”며 “회사와의 계약도 저희에 비해 오래 걸린 거지, 매우 빠르게 된 편이라고 한다. 이런 케이스가 드물다고 한다. 여러모로 잘 따라준 것 같다”고 회상했다.

이번 앨범명 ‘7TH YEAR’는 팀이 걸어온 시간 그 자체다. 데뷔 후 7년 동안 느꼈던 내면의 불안, 책임감,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가시’라는 메타포로 시각화했다. 특히 청춘 서사를 이어온 이들이 이제는 스스로 화자가 되어 자신들의 속마음을 꺼내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휴닝카이는 “앨범명을 듣자마자 반가웠다. 데뷔 초 서정적이면서 긴 제목을 많이 투바투 같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저희 색깔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수빈은 “한 글이 반가웠다. 데뷔 초가 생각나는 앨범 제목이다. 데뷔를 다시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재계약은 많은 것을 함의한다. 단순히 팀 활동을 연장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멤버들과 큰 산을 넘었다는 동질감과 희생, 개인보다 팀을 우선한다는 걸 모두가 확인한 순간이다. 이 자체가 감동으로 다가온 듯했다. 태현은 “7년이 체감이 안 되는 건 어제 일처럼 생생하기 때문 아닐까 싶다. 그래서 7년이란 세월이 안 믿긴다. 뒤돌아봤을 때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7년 중에

위기가 있었나 싶다”며 “춤과 노래, 여유는 당연히 성장해야 한다. 가장 큰 성장은 자신과 팀에 대한 이해였다. 서로 메워주는 책임감이 정말 많이 성장했다”고 기뻐했다.

오랜 고민과 성장은 무대 위에서 예술로 피어났다. 타이틀곡 ‘하루에 하루만 더 (Stick With You)’는 중독적인 일렉트로 팝 장르로, 끝이 보이는 사랑을 놓지 못하는 애절함을 노래한다. 무대 위 감정의 깊이는 남달랐다. 엄청난 혼연량에서 뿔어져 나오는 ‘무의식적 능숙함과 여유’가 이번 무대에서도 어김없이 빛났다.

직접 안무 창작에 참여한 연준은 “기존과 다른 음악이라 낯설었지만 우리만의 색을 입혔다. 코러스 부분의 손과 팔을 이용한 춤선이 만족스럽게 나왔다”고 자신했다. 길고 긴 가시덤불을 지나 다시 출발선에 선 투바투. 수빈의 진심 어린 끝인사가 이들의 끈끈함을 증명했다. “팬데믹 때 줬다 뺏긴 느낌에 많이 힘들었지만, 그 시간을 지나며 결국 우리가 완성됐습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평소엔 못 했던 말인데, 사랑하는 멤버들 정말 고맙습니다.”

함상범 기자 intellybeast@sportsseoul.com

사진 | 빅히트 뮤직·애프터



TOMORROW

투바투 컴백 앨범 ‘가시덤불에~’
“멤버간 의견 조율 너무나 쉽게”



TOGETHER

춤 노래 뿐 아니라 책임감도 성장
긴 제목 보고 다시 데뷔하는 느낌

‘왕사남’, ‘극한직업’ 넘어 역대 영화 흥행 2위.. 왕대박 피날레

올해 설 연휴 극장가를 장악했던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이하 ‘왕사남’)가 긴 흥행 레이스 끝에 마침내 ‘역대 흥행 2위’라는 값진 결과를 얻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왕사남’은 누적 관객수 1639만7347명을 기록했다. 이는 기존 역대 2위였던 ‘극한직업’(1626만6641명)을 넘어선 수치다. 앞서 ‘왕사남’은 올해 2월 가족 단위 관객이 극장을 찾는 설 연휴를 맞아 개봉했다. ‘사극’이라는 익숙한 장르에 웃음과 드라마를 균형 있게 녹여내며 세대 구분 없이 관객을 끌어들이었다.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는 관람층은 장기 흥행의 가장 큰 기반이 됐다.

무엇보다 ‘왕사남’의 강점은 접근성에 있다. 무겁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가볍지 않은 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구조, 그리고 배우들의 안정적인 연기 호흡이 관객을 극장으로 이끌었다. 여기에 배우들의 힘도 빼놓을 수 없다. 배우 유해진, 박지훈, 유지태 등 이미 대중적 호감도를 확보한 배우들이 극의 중심을 단단히 잡으며 관객들을 몰입시켰다. 여기에 캐릭터 간의 ‘케미’는 N차 관람을 유도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연출을 맡은 장항준 감독에게도 이번 작품은 특별하다. 그간 특유의 위트있는 연출



감사 인사를 하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장항준(아랫줄 오른쪽 두 번째) 감독과 출연진. 쇼박스

로 꾸준한 팬층을 확보해왔던 그는 ‘왕사남’을 통해 커리어 최고 흥행 성적을 기록했다. 관객들 사이에서 ‘거장항준’이라는 애정 어린 별명이 자연스럽게 붙었다.

또한 ‘왕사남’은 개봉 초반 다소 느린 흥행 추이를 보였으나 곧바로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흥행 가도를 달렸다. 덕분에 장기 흥행에 성공했고, 이는 결국 역대 2위라는 기록으로 이어졌다. 단순한 ‘초반 화력’이 아닌 ‘관객 반응’이 만든 결과다.

다만 더 높은 곳을 향한 도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봉 두 달 차에 접어들며 상영관 수가 점차 줄어드는 데다, 신작들의 공세 역시 거세다. 특히 같은 배급사 쇼박스의 공포

영화 ‘살목지’가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자연스럽게 ‘왕사남’은 정상을 내주고 한 걸음 물러서는 모양새다. 이러한 흐름은 ‘아름다운 퇴장’에 가깝다. 무리하게 상영을 이어가기보다 충분한 성과를 거둔 뒤 다음 주자에게 자리를 넘기는 선택이다. ‘왕사남’의 흥행은 특정 요소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다. 장르적 친숙함, 배우들의 신뢰도, 그리고 입소문이 만들어낸 관람 릴레이까지 여러 요소가 맞물린 결과다. 그 모든 과정이 쌓여 1600만 관객을 돌파했고, 마침내 역대 흥행 2위라는 자리까지 도달했다. 흥행과 완성도, 타이밍까지 모두 맞아떨어진 한 편의 성공 사례다.

서지현 기자

시애틀한국문화센터

즐거움이 시작되는 노래방 문화센터 오픈!

노래교실
동호회

월요일
11시~12시



생활영어

일요일
5시~6시30분



재봉틀

시간미정



라인댄스

목요일
10시30분~11시30분



스페인시
클래스

수요일
10시



컴퓨터

월요일
10시30분~12시



라춤바
댄스

화·토 10시~11시
목 10시30분~11시30분



통기타
노래&동호회

목요일
5시~6시



※소정의 수강료가 있으며, 선택하신 과목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싱글모임 공고

매달 셋째주 일요일 오후 5시

“지치고 외로운 당신을 위로하세요”

미국 생활 수십 년, 이제 당신의 곁을 채워줄 소중한 인연을 만나세요”

이국땅에서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조금 살만해졌는데, 문득 찾아오는 외로움에 마음 둘 곳 없으셨나요? 사별과 이혼의 아픔을 겪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필요한 분들을 모십니다.

- 누가: 마음의 휴식이 필요한 중장년 싱글 남녀 ■ 어디서: 새소망교회 (신앙과 관계없이 누구나 환영합니다)
- 무엇을: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들과의 대화, 그리고 새로운 인연 찾기다.
- 특징: 편안하고 재미있는 분위기 속에서 이미 수차례 모임이 있었고 좋은 커플과 좋은 친구사이드들이 탄생할것입니다.

[강사 초빙]

지금 바로 문의하십시오.

시니어 분들께 재능과 시간을 나눠주실 강사님을 모십니다

- ▶ 전문 기술자: 현장 실무 관련 강의 가능하신 분(예:냉동, 전기,컴퓨터)
- ▶ 음악/예술: 악기를 다루시는 전공자 (예:피아노,바이올린,첼로,드럼, 미술)
- ▶ 그 외: 어떤 분야든 교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를 가진 분

시애틀한국문화센터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문의 및 등록: 206-759-0125

가야금 선을 위로 힘찬 비트가 흐르고, 강렬한 칼군무 속에 선비의 풍류가 배어 나온다. 그룹 앰퍼샌드원(AMPERS&ONE)이 가장 한국적인 색채를 입고 돌아왔다.

앰퍼샌드원(나캠브 브라이언 최지호 윤시윤 카이 렐 마카야 김승모)이 8일 발표한 미니 4집 '데피니션(DEFINITION)'이 한터차트 일간 음반차트 1위로 직행하며 파급력을 입증했다. 멤버들 스스로 "우리의 성장을 느낄 수 있는 앨범이자 새로운 시작"이라고 선언했던 자신감이 수척로 확인된 셈이다.

이번 앨범은 앰퍼샌드원에게 재탄생에 준하는 분기점이다.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역시 "앰퍼샌드원이 그룹의 현재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의해 나가는 과정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음악적 승부수는 타이틀곡 '갓(GOD)'에 집약됐다. '신(神)'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한국의 전통 '갓'을 중의적으로 투영했다. 곡의 구성 역시 독창적이다. 앰퍼샌드원은 "'갓'은 트랩 비트를 기반으로 가야금 소리가 어우러져 동양풍의 느낌이 강렬하다"며 "'조선시대 힙합'으로 표현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지금 K팝 신에 '갓' 같은 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갓'으로 승부를 볼 각오"라며 남다른 기세를 드러냈다. '갓'의 완성도는 퍼포먼스에서 정점을 찍는다. 한국 무용 특유의 부드러우면서도 절제된 선을 현대적인 칼군무로 재해석했다. 후렴구에서 갓을 머리에 쓰는 듯한 동작과 기도하는 합장 포즈는 '갓'이 지닌 이중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한다.

해학적인 디테일도 인상적이다. 기도가 이뤄지지 않자 술 한 잔을 권하는 듯한 제스처는 선비 특유의 여유와 풍류를 구현한 대목이다. 여기에 최지호의 부채 퍼포먼스는 한국 전통의 미감을 극대화하며 시각적 몰입감을 높인다.

앰퍼샌드원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호주, 캐나다 등 다양한 국적의 멤버들로 구성된 팀이다. 이러한 특성이 도리어 한국 문화를 글로벌 시장에 전파하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멤버들은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과정만으로도 팀의 시너지가 된다"며 "가야금 선율, 의상의 한국적 액세서리, 무늬 등을 통해 전 세계 팬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앰퍼샌드원은 오는 5월 2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2026 라이브 투어 '본 투 디파인(Born To Define)'에 돌입한다. 이들은 "'갓'을 통해 우리만의 무기가 생겼다"며 "지난 8개월 공백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무대로 증명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승록 기자



가야금 선율에 트랩 비트 칼군무... 오 마이 갓!
앰퍼샌드원 "이것이 조선의 힙합이다"



사진 | FNC엔터테인먼트

안정된 회사, 유능한 전문가와 함께라면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쉬어집니다.

- IRA / Roth IRA / 401(K) *
- 뮤추얼 펀드 / Brokerage Account *
- 평생연금 - Annuity **
- 은퇴계획 - Retirement Plans
- 상속계획 - Estate Planning
- 개인&비즈니스 생명보험- Life Insurance for Personal & Business
- 간병보험 - Long Term Care
- 생명보험을 활용한 학자금 플랜-College Funding using Life Insurance

* products offered through Registered of NYLIFE Securities LLC (Member FINRA/SIPC), a Licensed Insurance Agency and a New York Life Company.

** Issued by New York Life Insurance and Annuity Corporation, a wholly owned subsidiary of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The Million Dollar Round Table (MDRT), The Premier Association of Financial Professionals, is recognized globally as the standard of excellence for life insurance sales performance in the insurance and financial services industry. 2024



178년 역사의 뉴욕라이프 성공 노하우를 전해드립니다.

김수현 (BILL "SUHYUN" KIM)

Registered Representative *(Financial Services Professional)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Agent

Mobile 253 802 2550

* Registered Representative offering investments through NYLIFE Securities LLC, (Member FINRA/SIPC), A Licensed Insurance Agency.

The offering documents (policies, contracts, etc.) for all New York Life and its subsidiaries products are available only in English. In the event of a dispute, the provisions in the policies and contracts will prevail.

뉴욕라이프 및 그 회사들이 제공하는 모든증권 계약서는 영문약관으로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는 증권과 계약서의 각 조항이 우선합니다.

Insure. Prepare. Retire.

Be good at life.



신뢰는 결과로 증명됩니다.

수천 건의 성공 사례, 수많은 고객의 회복.
신뢰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 3 천만 달러 이상의 판결및 합의 ”

교통사고 전문



CAR CRASH
WASHINGTON

www.carcrashwa.com

한국어.영어 (253) 313 2738 (253) 313 6813

나홍진 '호프', 4년만 칸영화제 경쟁부문 진출..“영광이다”

2022년 '헤어질 결심'·'브로커' 이후 처음...작년 초청작 0편 부진 씻어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가 다음 달 12일 개막하는 칸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됐다.

칸영화제 집행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호프'를 포함한 제79회 영화제 공식 초청작을 발표했다.

한국 영화가 칸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 건 2022년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과 한국 제작사가 만든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브로커' 이후 4년 만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칸영화제 공식·비공식

부문을 합쳐 한국 장편영화가 한 편도 초청 받지 못하며 위기감이 커졌지만, 올해는 다시 황금종려상을 놓고 겨루게 됐다.

'호프'는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항구마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가 찾아오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작품이다. 황정민과 조인성, 정호연과 할리우드 배우 마이클 패스벤더, 알리시아 비칸데르 등이 출연했다. 티에리 프레모 집행위원장은 "액션 영화"라면서도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장르가 바뀐다"고 소개했다. '호프'는 나

감독이 10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인 데다 호화 캐스팅, 베일에 싸인 이야기 등으로 한국 영화 최고 기대작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제작비 규모가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경쟁 부문 초청으로 나 감독은 2016년 '곡성'이 비경쟁 부문에 진출한 이후 10년 만에 칸의 레드카펫을 다시 밟게 됐다. 나 감독은 배급사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영광이다. 남은 시간 분발하겠다"고 짧은 소감을 전했다.

나 감독은 장편 연출 작품 전부가 칸영화제에 초청되는 기록도 세웠다.



제79회 칸국제영화제 기자회견.

그의 데뷔작 '추격자'는 2008년 칸영화제 비경쟁 부문 미드나이트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됐고, '황해'는 2011년 칸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에, '곡성'은 2016년 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진출한 바 있다. 경쟁 부문 초청은 '호프'가 처음이다.

메디케어 보험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메디케어 가입

플랜에 따라 혜택도 다릅니다.
꼼꼼히 살펴보고 가장 좋은
플랜으로 선택하세요!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상담받으세요'

플랜변경 기간입니다

성실하고 친절한 에이전트들에게서
무료로 자세한 서비스를 받으세요



단계. 1

일반 메디케어에
가입하십시오.

일반 메디케어 (연방 정부에서 제공)



병원 입원 및 입원 진료 비용
지불에 도움



의사 방문 및 외래 진료 비용
지불에 도움

선택사항 1 또는 선택사항 2

일반 메디케어에 다음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추가합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선택하십시오.

메디케어 보조 보험 플랜
(민간 회사에서 제공)

일반 메디케어에 수반되는
회원 지출액 일부에 대한
비용 지불에 도움을 줍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민간 회사에서 제공)



파트 A (병원보험) 및
파트 B (의료보험)를
하나의 플랜에서 통합합니다.



보통 처방약 혜택이 포함됩니다.

일반 메디케어가 제공하지 않는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계. 3

저희에게
말겨 주시면
됩니다.

단계. 2

귀하에게 추가적인 혜택이
필요한지 결정하십시오.
추가 혜택을 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사업체보험
무엇이든 대답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정연 종합보험

Federal Way
253-228-5295
Tacoma
253-335-3895
jpsinsurance.us@gmail.com



온정숙 종합보험

Cell
253-353-9730
Office
253-503-6441
jungvaughn62@comcast.net

VAUGHN Insurance Services, LLC



패티임 보험

Cell
253-632-8904
Office
253-335-3895
girlpatti1@gmail.net



이백희
메디케어 전문보험

Cell
253-228-7006
bkins.medicare@gmail.com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힘내세요! 함께 이겨내요! 😊

비즈니스 탐방-샤부 존(Shabu Zone)

“맛도 가격도 퀄리티도 서비스도 모두 만족”

1개월 전 페더럴웨이에서 오픈한 '샤부 존', 불경기 식도락가들에게 큰 만족 선사
 퀄리티 높은 무제한 고기와 해산물에 과일 · 슬러시 · 아이스크림까지 단돈 29.99불

불경기가 깊어지며 외식 한 번에도 지갑 열기가 조심스러워지는 요즘, 오히려 식도락가들의 발길을 끌어모으는 샤부샤부 전문점이 페더럴웨이에서 등장했다. 한인이 운영하는 '샤부 존(Shabu Zone)'이다.

개업한 지 불과 한 달 남짓. 하지만 샤부 존은 벌써 “맛, 가격, 퀄리티, 서비스 사박자를 모두 갖춘 집”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입소문을 타고 있다. 한 번 다녀온 이들의 입을 통해 “한인 입맛에도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집”이라는 평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탁 트인 넓은 홀이다. 답답함 없이 시원한 공간 구성은 식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기대감을 높인다. 자리에 앉으면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것은 샤부샤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수프’다. 다시마와 가쓰오부시로 깊은 감칠맛을 낸 기본 다시 수프(Basic Dashi Soup)를 비롯해 총 9가지 수프가 준비돼 있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마라 수프(Mala Soup), 채식주의자를 위한 채소 수프(Vegetable Soup)도 눈길을 끈다.

기자는 이 중 매콤한 풍미가 살아 있는 스파이시 오리지널 하우스 수프(Spicy Original House Soup)를 선택했는데, 첫 숟갈부터 만족감이 확연했다. 특히 인상적인 점은 수프가 1인용 팟으로 제공된다는 것. 함께 온 사람의 취향을 고려해 양보하거나, 입맛에 맞지 않는 수프를 여지로 먹을 필요가 없다. 기자 역시 과거 시애틀 차이나타운에서 반으로 나뉜 대형 팟을 공유하다가 수프가 맞지 않아 제대로 먹지 못했던 적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그런 ‘불상사’가 원천 차단된다.

수프를 골랐다면 다음은 고기 선택이다. 와규 갈비살을 비롯한 다양한 소고기류, 내추럴 삼겹살 등 돼지고기류, 호주산 양고기, 최상급 닭가슴살까지 총 11가지 고기 메뉴가 준비돼 있다. 선택지가 넉넉한 만큼, 처음 방문했다면 한 가지에 집중하기보다는 1~2접시씩 여러 종류를 나눠 맛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샤부 존 외부 전경.



혹시 “고기 위주의 메뉴라 채식주의자는 실망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든다면 기우다. 뷔페 코너에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새우와 게 등 해산물부터 각종 버섯과 신선한 채소들이 풍성하게 마련돼 있다. 여기에 점심에는 3달러, 저녁에는 10달러를 할인해주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 가격 정책은 사장님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소스 또한 샤부 존만의 자체 개발 소스부터 익숙한 기본 소스들까지 다양하게 준비돼 있어, 조합에 따라 전혀 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다. 잘 익은 고기와 해산물을 소스에 살짝 찍어 먹는 순간, ‘무제한’이라는 단어가 주는 만족감이 배가된다. 식사 마무리는 디저트 코너다. 신선한 과일과 슬러시, 아이스크림이 준비돼 있으며, 아이스크림 위에 취향대로 토핑을 얹어 먹으면 입 안에 남을 수 있는 느끼함이 깔끔하게 정리된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 계산대 앞에서 또 한번 놀라게 된다. 점심 가격은 29.99달러(월~금 오전 11시~오후 3시, 공휴일 제외). 요즘 웬만한 한식 단품 메뉴도 20달러를 훌쩍

넘기는 현실에서, 푸짐한 고기와 해산물, 디저트까지 무제한으로 즐기기도 이 가격이라는 사실은 솔직히 ‘반칙’에 가깝다. 저녁 가격은 41.99달러다.

“점심과 저녁 메뉴가 크게 다르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기본 구성은 상당히 유사하다. 점심에도 메인 라인업 대부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다만 저녁은 ‘차이가 크다’기보다 ‘한 단계 더해진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시간대에 맞춰 일부 고기와 해산물 등 프리미엄 메뉴가 더 풍성하게 준비돼(고기 선택의 폭이 점심 #5~#11에서 #1~#11으로 확대 및 뷔페 코너에 해산물 추가), 모임이나 접대 자리로 활용하기에 좋다. 실제로 기자 일행이 저녁에 방문했을 때, 기본 메뉴의 폭이 넓어 만족도가 높았고, 여기에 저녁에만 느낄 수 있는 추가 구성과 분위기가 ‘값’을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샤부 존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당이 아니다. 합리적인 가격 위에 정성과 디테일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요즘 같은 시대에 더 반가운 ‘제대로 된 샤부샤부 집’이다. 식도락가라면 한 번쯤은 반드시 경험해 볼 가치가 있다. 혼자 가기보다는, 평소 대접하고 싶은 지인이거나 사업상 파트너와 함께 가는 것이 좋다. 그러면 상대는 “좋은 음식점을 소개해 줘서 고맙다”라는 마음과 “정말 잘 대접받았다”라는 만족감을 함께 느끼며, 그 감사함을 당신에게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될 것이다.

▲문의: 206)212-6125

▲주소: 1816 S 320th St Federal Way, WA 98003

▲영업 시간: 월~목요일(점심: 오전 11시~오후 3시, 저녁: 오후 5시~오후 10시), 금요일(점심: 오전 11시~오후 3시, 저녁: 오후 5시~오후 11시), 토요일(오전 11시~오후 11시), 일요일(오전 11시~오후 10시)

▲가격: 월~금요일(점심: \$29.99, 저녁: \$41.99), 토~일요일-공휴일(점심-저녁: \$41.99)



퀄리티 높은 고기.



뷔페 코너에 마련된 싱싱한 새우.



뷔페 코너에 마련된 싱싱한 게.



다소 느낄 수 있는 느끼함을 시원하게 날려 버릴 각종 슬러시.

캐나다 로키 전문 여행사로 고객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한국에서 한달간 무제한 사용 [유심] 저렴하게 드립니다"
"공항 라이드 저렴하게 해드립니다"

서울행 항공권/국내선 항공권 판매

매주 2회 출발 (5월~10월 그외는 수시 출발)

2026 캐나다 로키여행

4박5일 \$990

타사보다 더 즐기는 코스
자스퍼/멀린호수 크루즈 영혼의섬관광
미에뜨 야외온천/신비의 모레인 호수

VIA RAIL 밴쿠버- 자스퍼 1박 2일 기차여행
일반석 \$180 For Young People
벌스 (번커베드) \$600 추가
캐빈 1인실 / 2인실 \$800 추가

5박6일

\$1090

밴쿠버 관광 + 4박5일 관광

알래스카 크루즈



5월~9월

지중해 크루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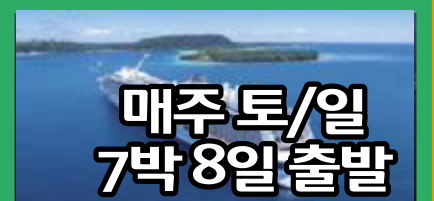
4월~11월

북유럽 크루즈



5월~9월

캐리비안 크루즈



매주 토/일
7박 8일 출발

남미 여행 10박12일

\$5900부터 (항공포함) 수시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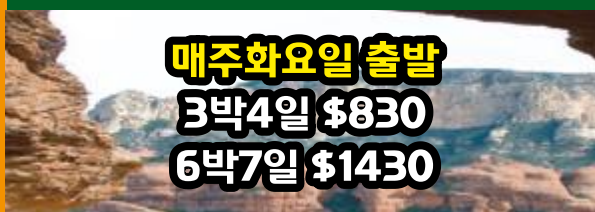
페루(리마, 쿠스코, 마추피추) 알젠티, 브라질(이과수, 리오 예수님동상)

고국투어 (K-SHUTTLE) 7박8일

인천 공항 부터 픽업(2인 이상) 한국인 가이드가 영어 및 한국어로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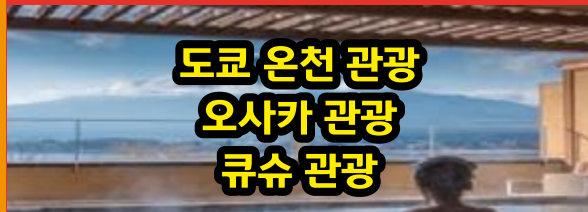
매주 목요일 출발 \$1499 + 항공 (호텔 조식 포함 / 중식과 석식은 맛투어집에서 자유식)

미서부 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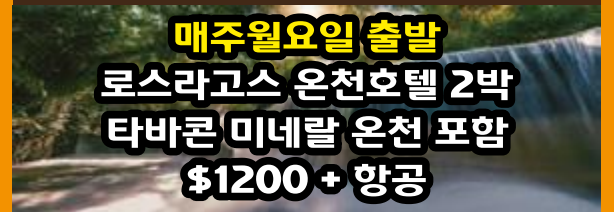
매주 화요일 출발
3박4일 \$830
6박7일 \$1430

일본 관광(3박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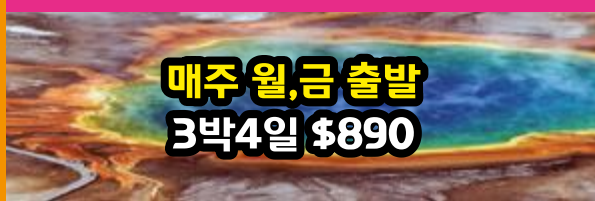
도쿄 온천 관광
오사카 관광
큐슈 관광

코스타리카 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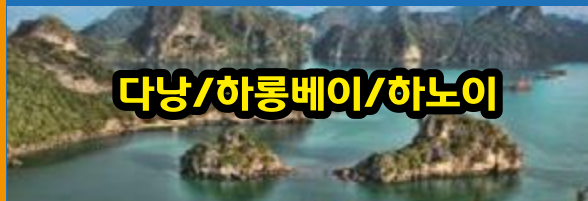
매주 일요일 출발
로스라고스 온천호텔 2박
타바콘 미네랄 온천 포함
\$1200 + 항공

엘로스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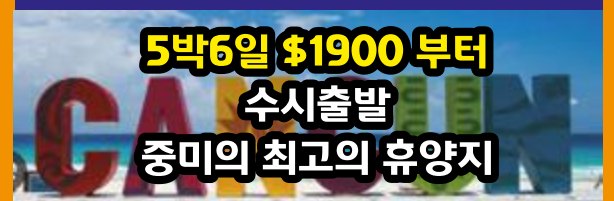
매주 월, 금 출발
3박4일 \$890

베트남관광



다낭/하롱베이/하노이

칸쿤



5박6일 \$1900 부터
수시출발
중미의 최고의 휴양지

우리투어

린우드 G-Market 1층

<주말/휴일 상담가능>

253-397-6555

wooritour.ca

wooritoursea@gmail.com

206-200-6336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7개국 북유럽 발트 14일** [얼리버드 부부합산] -\$1,000 할인 -얼리버드 마감 12월 30일

5/17, 6/2, 6/16, 7/6, 7/20, 8/3, 8/17, 9/1 **얼리버드 절약 찬스!! \$5490** \$5,990 + 항공료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 - **북유럽 4국 11일** 참가 38주년 기념 특별 상품! 미슐랭 가이드 맛집

얼리버드 절약 찬스!! -\$300 \$4690 \$4,990 + 항공료

어느 여행도 비교 될 수 없는 퀄리티
한국에서는 1,400만원 상당의 투어 급과 동일!

북유럽 투어는 눈으로만 보고 오는 투어가 아닙니다.

- 지난 8년간 미국내 최고 모집률과 최고 인기상품 확정!!
- 북유럽의 하이라이트 노르웨이는 하루가 더 긴 패키지!

케냐,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보츠와나, 남아프리카 **7개국 아프리카 두바이 16일** +항공료

[얼리버드 부부합산] -\$4,000 할인 -얼리버드 마감 6월 30일

출발확정 2/24 8/11 **\$12500**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미 5국 16일 \$6399** 4인 이상 수시 출발 + 항공료

리마, 나스카, 쿠스코, 마추픽추, 라피즈, 우유니, 산티아고, 부에노스, 이과수, 리오데자네이루

남미 3국 12일 \$4399 + 항공료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4인 이상 수시 출발

남미 2국 12일 \$3999 + 항공료

페루, 볼리비아, 우유니 4인 이상 수시 출발

페루 4국 8일 \$2499 + 항공료

4인 이상 수시 출발

코스타리카 6일 \$1349 + 항공료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9일

7/19 **\$3599** + 항공료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봄을 맞이하는 곳
"세계 비경으로 알려진 쿤덴호프!"

프랑크푸르트-엘트빌레-트리어 룩셈부르크-노틀담사원-위털루 대뤼셀-성 미셸대성당-안트워프 로테르담-헤이그-암스테르담

영국, 프랑스, 벨기에,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 **서유럽 7개국 13일** 7개국으로 가실수 있는 **마지막 기회 \$3599** + 항공료

출발확정 4/23 **이탈리 일주 10일 \$2699** + 항공료

5/7, 6/11 7/2, 8/5 9/2, 10/8 11/5 **시칠리아 몰타 10일 \$3499** + 항공료

팔레르모, 체팔루, 타오르미나, 메타나, 고조섬, 카타니아, 시라쿠사, 아그리겐토, 팔레르모.

NETFLIX "이 사랑 통역 되나요?"

극중 배경으로 나오는 이탈리아 시에나, 몬탈치노, 토스카나, 피렌체 지역을 직접 둘러 볼 기회!!

푸른빛에 물들고 진한 낭만에 빠진다.. **예술기행 남프랑스 11일**

4/7, 5/11, 6/22, 9/21, 10/12 **\$4199** + 항공료

"스물리와 함께 하는 럭셔리 와이너리 투어"

마라 3/26 **스페인 포르투갈 11일** 5/21, 6/11, 9/10, 10/8, 11/5, 12/8

바르셀로나/ 리스본/ 파티마 성지 **\$3699** + 항공료

전일정 5성급 호텔

지중해 3개국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3,199** + 항공료

5/19, 9/21, 10/20

스페인에서 꼭 먹어야 하는 음식 9선
상그리아, 핀초, 감바스, 허몽, 해물 뼈에야, 갈라미리, 쌀, 라보 데 포르, 크레마 카탈라냐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동유럽 발칸 14일**

포스토니아 동굴 입장 **\$3699** \$3,799 + 항공료

출발확정 4/16

3/19, 4/2, 5/7, 5/21, 6/4, 6/18, 7/2, 9/3, 9/17, 10/15

참사 35주년 기념 특별 상품! 미슐랭 가이드 맛집 **발칸유럽 9일**

포스토니아 동굴 입장 **\$2799** \$2,899 + 항공료

3/24, 4/7, 4/21, 5/12, 5/26

"만족도 최상! 여유있는 일정 특급호텔, 특급 식사!!"

터키 발칸 4개국 15일 \$4099 + 항공료

출발확정 4/27

아름다운 자연의 고귀한 역사,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놓곳- 터키 발칸의 핵심들을 모아 돌아보는 동화같은 감성과 푸르른 자연속에 잊지 못할 감동으로 남을 여행 코스-

발칸의 주요 지역과 터키를 한번에 돌아볼 주요 핵심 코스

스위스/이탈리/호른스리/알프스 **알프스 4국 12일**

출발확정 5/13 6/2, 7/7 **\$5699** + 항공료

생 모리츠/ 베르니나 산악 관광

알프스의 4대 미봉을 찾아서

동서양의 경계, 천년의 신비를 만나라!! 신이 선택한 때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 **코카서스 3국 13일** 9/21

출발확정 5/11 **\$3,190** + 항공

아르메니아/조지아/아제르바이잔

스네이펠스네스/ 아쿠아레리/ 요콜살론 빙하보트/ 블루라군 온천욕 **아이슬란드 9일**

출발확정 7/12 **\$5899** + 항공료

이 가격으로 가실수 있는 마지막 기회

서유럽 4개국 11일 유럽에서 온 유럽 전문 여행사의 명예와 자존심!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3590** + 항공료

4/22, 6/10, 7/7, 9/8

아/름/다/운/산/행 **스위스 트레킹 12일 \$4299** + 항공료

출발확정 6/18

하루 4~6시간 트레킹

두바이와 사막의 위대명 이집트... 럭셔리 5성급 크루즈 일주 4/7, 11/3, 12/1 **이집트 두바이 12일 \$3899** + 항공료

대이집트 박물관 GEM 관람

이집트 럭셔리 크루즈 3박 일정, 구약성서 예루살렘 요르단 탐사 4/7, 11/3, 12/1 **이집트 요르단 13일 \$3999** + 항공료

대이집트 박물관 GEM 관람

마라 3/11 **터키 그리스 13일** 5/4, 6/10, 9/9, 10/7

출발확정 4/13 **\$3799** + 항공료

모든 옵션 포함 가격

우리투어 <주말/휴일 상담가능> wooritour.ca wooritoursea@gmail.com

린우드 G-Market 1층 **253-397-6555** **206-200-6336**

바이어 고객님들

광고 이외에도 알짜 매물이 많습니다.

North 테리아끼 20만불

- ▶ SBA 융자가능
 - ▶ 5만불이하로 다운하고 사장님이 되어보세요
 - ▶ 일매상 1,500불로 안정적 운영
 - ▶ 교통편리하고 시내중심
 - ▶ 단골상대 장사하면 매출증진가능
- 좋은 동네라서 추천해드립니다.

South 햄버거가게

- ▶ 손쉬운 운영 가능

셀러 고객님들

합리적인 수수료와 최고 가격으로 팔아드립니다.

East 테리아끼 10만불

- ▶ 오너캐리 가능
- ▶ 부부가 직접 하면 안성맞춤

맞춤상담 받아보세요!

엠마 부동산

좋은 매물이 항상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으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고객님께 맞춤으로 안내해드립니다.

Emma Park 206-688-0780 | Emmapark0780@gmail.com

조선용 보험 에서 알려드립니다.



메디케어 안내 - 지금 확인하세요!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 보험 프로그램

■ 메디케어 구성 안내

- 파트 A - 병원/입원 보장
- 파트 B - 외래진료, 검진 등 의료 보장
- 파트 C - 메디케어 어드벤처지 플랜 (파트 A와 B를 민간 보험사가 대신 관리, 추가 혜택 포함 가능)
- 파트 D - 처방약 보장

■ 메디케어 어드벤처지 처방약 플랜 (MAPD)

- ☞ 파트 A, B, D 보장 ☞ 보험료 \$0부터 가능
- ☞ 최대 본인 부담금 도달 후 100% 보장
- ☞ 다양한 보장 수준과 약 코페이
- ▶ 단, 의사 네트워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또는 오리지널 메디케어 + 서플리먼트 플랜 조합도 선택 가능

■ 보험 등록 기간

- 초기 가입 기간: 65세 생일 기준 전후 3개월 포함 총 7개월
- 연중 가입 기간 (10/15-12/7): 새 플랜 가입 또는 변경,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작
- 오픈 가입 기간 (1/1-3/31): 현재 어드벤처지 플랜 변경 또는 오리지널 메디케어 전환 가능, 약보험 등록 가능
- 특별 등록 기간: 이사, 퇴직 등 생활 변화 발생 후 2개월 내 변경 가능

■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 약보험 보조 프로그램

- 자격이 된다면 보험료 보조 가능!
- 듀얼 플랜 가입으로 추가 혜택 제공
- 근로소득이 있다면 수입 기준 완화 혜택

■ 가입 전 확인사항

- 주치의, 병원, 약국 계약 여부
- 복용 중인 약이 모두 보장되는지
- 1년간 약값 총 부담금 비교



조선용 보험 에서는 메디케어 신청부터 메디케어 비용 보조 프로그램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425-951-9210

(주내과 옆)

4713 168th St SW Ste 103 Lynnwood, WA 98037



플랫폼 경쟁 속 '초반 몰입' 자극 필수
반전갈등 전면 배치... 감정 축적 뒷전
느린 호흡 힐링물, 기획 단계부터 밀려
'폭삭 속았수다' 이후 같은 걸 작품 실종



사진 | 핀터레스트

여운 대신 자극... '도파민'에 지배당한 인방 극장

힐링 드라마가 사라졌다. 한동안 드라마는 사람을 오래 붙잡아 두는 방식으로 사랑받았다. 큰 사건은 없어도 됐다. 누군가 밥을 차리고, 하루를 버티는 장면 그 자체가 '이야기'였다. 시청자는 사건보다 정서를 따라갔다. 어떤 작품은 다 보고 나서도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흐름이 달라졌다. 갈등은 더 강해졌고, 한 회차만에 반전이 터진다. 캐릭터는 곧장 극단으로 몰린다. 사랑도, 권력도, 복수도, 죽음도 즉각적으로 소비된다. 이른바 '도파민형 콘텐츠'가 주류가 됐다.

한 드라마 관계자는 "플랫폼 경

쟁이 치열해지면서 초반 이탈을 막기 위한 자극적 장치가 사실상 필수 요소"라며 "이러한 구조가 콘텐츠 전반의 톤 자체를 바꿔놓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의 화제작들만 봐도 분명하다. TV조선 '닥터신'은 첫 회부터 '뇌 체인지 수술'이라는 파격 설정을 전면에 내세웠다. 천재 의사 신주신이 의식불명에 빠진 연인 모모를 살리기 위해 금기의 수술을 감행한다는 구조 자체가 이미 일상 드라마와는 결이 다르다. 임성한(피비) 작가 특유의 말맛 강한 대사는 방영 직후부터 밈으로 번졌다.

ENA '클라이맥스'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 검사 방태섭의 정계 진출 선언, 살인사건 재부상, 부부 관계의 균열처럼 사건과 반전을 연쇄적으로 밀어 넣었다. 이야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 판을 키우는 쪽으로 향했다. 이런 방향은 수치로도 드러났다. '클라이맥스'는 2049 타겟 시청률 1.3%로 자체 최고를 기록했고, 월화드라마 1위에 올랐다. 즉 지금 시청자의 반응은 '정서적 축적'보다 '즉각적 몰입'에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러한 경향이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고착화된 구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플랫폼은 첫 주, 첫 회, 심지어 첫 10분 안에서

청자를 붙잡아야 한다. 그러다 보니 작품은 갈수록 빠른 자극을 택한다. 인물의 감정이 천천히 쌓이기보다 사건이 먼저 터진다. 시청자는 사건을 따라가며 반응한다. 이렇게 되면 일상의 결을 천천히 움직이는 힐링 드라마는 출발부터 불리하다. 정적인 장면, 작은 감정, 느린 리듬은 "재미가 없다"는 평가를 받기 쉽다.

따라서 도리어 재조명되는 작품이 넷플릭스 '폭삭 속았수다'다. 아이유, 박보검을 비롯해 주조연 배우들의 완벽한 연기 호흡을 바탕으로, 현실적 소재를 깊이 있고 아름답게 풀어냈다는 평가 속에 정서적 여운을 남긴 드라마다. 지

금의 도파민형 드라마와는 달랐다. 물론 이후 힐링 드라마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전면에서 서지 못하고 있다. 지금 시장에서 더 유리한 건 즉각적으로 시청자들을 잡아끌 수 있는 작품이다.

현재 드라마 시장에서 아쉬운 것은 힐링 드라마의 '부재' 자체보다, 아예 전략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느린 감정, 작은 위로, 일상의 결이 설 자리를 잃는 순간, 드라마는 점점 더 흥분만 남기고 여운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폭삭 속았수다' 이후 비슷한 온도의 작품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도 이러한 지점에 있다.

김현덕 기자

근로자로서의 당신의 권리를 아십니까?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 ▶ 직장에서 다쳤을때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방법
- ▶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할때
- ▶ 근로자로서의 기본 권리에 대하여
최저임금, 초과임금, 휴식시간, 유급병가

시애틀 한국 문화센터가 도와드립니다.

360-915-4148



In partnership with the Department of Labor & Industries for worker outreach and education.





워싱턴 한인 선교합창단 단원 모집

— Washington Korean Mission Choir —

🎵 모집대상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과 선교에 열정이 있는 크리스천 누구나

📅 연습안내

🕒 연습 시간: 매주 주일 오후 5~7시

📍 연습 장소: 시애틀물댄동산교회

17620 60th Ave W, Lynnwood, WA 98037

📄 지휘 | 허정덕 목사

- 서울대학교 성악과 졸업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석사 졸업 (합창지휘 전공)
-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합창지휘 박사 과정 수료
- 現 시애틀물댄동산교회 담임
- 現 동지선교회 남쪽밥상 Service Director



☎ 문의

조현숙 총무: 509-859-2844

37년 전통의 워싱턴 한인 선교합창단이 허정덕 목사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합니다! (1989년 창단)



배우 김혜운이 스크린으로 돌아왔다. 그것도 자신이 “각 잡고 좋아한다”고 말할 만큼 애정이 깊은 공포 장르다.

김혜운의 첫 공포 영화 ‘살목지’는 로드뷰에 찍힌 정체불명의 형체를 쫓아 저수지로 향한 촬영팀이 물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존재와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다. 김혜운은 극 중 물에 대한 트라우마를 지닌 로드뷰 촬영 회사 PD 수인 역할을 맡아 이야기의 중심을 이끈다.

“오랜만에 스크린으로 인사드리는 거라 떨리기도 하고, 어떻게 봐주실지 기대도 돼요. 그냥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담담하게 운을 댄 김혜운은 공포 장르 이야기가 나오자 이내 표정이 달라졌다. 김혜운은 “원래 공포 영화를 정말 좋아한다”며 “시나리오도 재밌게 읽었고, 무엇보다 ‘물귀신’이라는 소재가 신선하게 느껴졌다. 공포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건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괴담을 즐겨본다는 김혜운은 공포 장르의 매력에 대해서도 분명한 취향을 드러냈다. “공포나 스릴러는 늘 궁금증으로 시작하잖아요. ‘저게 뭘까’, ‘정체가 뭘까’ 하면서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모든 게 밝혀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오는 해소감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그 쾌감을 좋아해서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작품에서 김혜운은 단순히 공포에 질린 인물이 아니라 물에 대한 트라우마를 지닌 복합적인 캐릭터를 그려냈다. 김혜운은 “감독님께서 수인은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인물이라고 하셨다”며 “그래서 공포감 자체보다 그 안에 깔린 감정들, 죄책감이나 지쳐 있는 상태에 집중하려고 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보다, 안에서 계속 무너지고 있는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공포 마니아답게 현장에서도 ‘공포 체험’은 이어졌다. 김혜운은 “스태프 중에 귀신을 봤다는 분도 있었다”며 “저도 뭔가 형체를

보고 싶어서 산속을 한참 바라보기도 했는데 결국 실패했다”고 웃음을 보였다.

그럼에도 현장의 분위기는 생생한 공포감으로 가득했다. 특히 분장된 귀신을 처음 마주했을 때의 충격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김혜운은 “시나리오로 아는 것과 실제로 보는 건 완전히 다르더라. 분장이 완성된 모습을 보면 순간적으로 놀라게 된다”며 “그게 연기에 자연스럽게 반영된 것 같다”고 회상했다. 또한 김혜운은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도 깜짝 놀라는 장면들이 있었다”며 “특히 물수제비 장면은 돌이 진짜 날아오는 줄 알았다. 너무 놀랐는데, 그래서 더 재밌게 느껴졌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혜운은 공포를 연기하면서도 동시에 공포를 즐기는 배우다. 이에 대해 김혜운은

“저는 원래 귀신을 믿는 편”이라며 “공포 영화나 괴담을 좋아해서 자주 찾아보고, 친구들이랑 무서운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한다. 이번 작품을 하면서 ‘내가 생각보다 겁이 없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포물은 배우들에게 새로운 스타를 탄생시키는 ‘등용문’으로 여겨져 왔다. 자연스럽게 ‘호러퀸’이라는 수식어에 대한 기대도 따라붙는다. 이에 대해 김혜운은 “그렇게 불러주신다면 감사하다”며 “공포 장르를 연기할 수 있어서 즐거웠고, 현장에서 ‘이렇게 하면 더 무섭겠다’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도 정말 재밌었다. 각 잡고 무서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좋았다”고 이야기했다.

스릴러와 로맨틱 코미디 등 다양한 장르를 오가며 자신만의 필모그래피를 쌓아온 김혜운은 이번 작품을 통해 또 하나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다. 김혜운은 “최대한 안해본 캐릭터를 하려고 하는 편”이라며 “비슷한 역할을 반복하면 저도 간하는 느낌이 들어서, 시나리오와 캐릭터를 보고 ‘새로운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지현 기자

“무서운데도 계속 보게 되는 게 공포 영화 같아요.”

시나리오를 처음 읽은 날 선명한 악몽을 꿴다는 배우 이종원은 그렇게 영화 ‘살목지’에 발을 들였다.

이종원은 극 중 로드뷰 촬영 회사 PD이자, 물공포증을 지닌 수인(김혜운 분)의 동료이자 전 연인 기태 역할을 맡았다. 연락이 끊긴 수인을 찾아 직접 살목지로 향하는 인물이다.

이종원이 꼽은 ‘살목지’의 가장 큰 매력은 단연 ‘몰아붙이는 공포’다. 그는 “전체적으로 강약 조절이라기보다 계속 강하게 밀어붙이는 느낌”이라며 “관객 입장에서 쉴 틈 없이 ‘퍽퍽’ 치고 들어오는, 일종의 어트랙션 같은 영화”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종원의 약점이 ‘공포’라는 점이다. 그는 “어릴 때 ‘무서운 게 딱 좋아’ 정도만 보던 수준이었다”고 웃음을 보였다. 이어 “이번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다. 대본을 읽는데 머릿속에 장면이 너무 선명하게 그려졌다”며 “그게 오롯이 시나리오의 힘이라고 느꼈고, 해보지 않았던 장르라는 점에서도 끌렸다”고 말했다.

특히 “대본을 본 첫날부터 악몽을 꿴다”는 이종원은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만큼 재밌는 대본이었던 것 같다. 악몽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고 웃었다.

극 중 기태는 후반부에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제대로 된 스크린 데뷔작인 만큼 분량에 대한 아쉬움도 있을터다. 이종원은 “찍은 만큼 그대로 나온 것 같다. 전혀 아쉬지 않다”며 “오히려 초반부터 계속 등장했다면 후반부의 절박함이나 감정이 희석됐을 것 같다. 지금 구조라서 더 임팩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반 이후 투입되는 만큼 연기적인 고민이 컸다. 이종원은 “촬영 현장에 늦게 합류하다 보니 어떻게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 감독님이 ‘복잡하

게 생각하지 말고, 기대는 수인만 바라보는 인물로 접근하라’고 조언해주셨다”며 “같은 상황에서 놀라더라도 기대는 먼저 수인을 살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에 바로 이해가 됐다. 그 이후로는 공포보다 ‘수인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공포 영화 촬영 현장에서 흔히 들려오는 괴담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정작 촬영 당시에는 그런 여유가 없었다. 이종원은 “촬영할 때는 공포를 느낄 겨를이 없었다. 어떻게 찍을지, 어떤 감정을 만들어야 할지에 집중하다 보니 무서움을 느낄 틈이 없었다”며 웃음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영화를 완성본으로 보니까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오히려 더 무섭더라”고 털어냈다.

시나리오 본 첫날부터 악몽 시달려
강약 조절없이 ‘몰아붙이는’ 공포물
무서워도 계속 보게 만드는 게 매력
사운드-촬영방식 등 차별성 더 오싹

려 더 무섭더라”고 털어냈다.

특히 실제 저수지 촬영에 대해 이종원은 “직접 물에 들어가 촬영도 했는데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다리를

스치는 나무나 물속의 감각이 굉장히 생생했다”며 “습하고 어두운 환경, 기괴하게 자란 나무들까지 더해져 공간 자체가 주는 공포가 컸다”고 회상했다.

이종원은 그런 공포 장르의 매력에 대해 “싫는데도 계속 보게 되는 힘”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이종원은 “이거 보면 무서워서 잠 못 잘 것 같은데도 궁금해서 보게 된다”며 “사람들 사이에서 ‘거 봐, 진짜 무섭다’는 식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공포 장르만의 힘인 것 같다. 알면서도 끌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험이 공포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덧붙였다.

‘살목지’만의 차별점으로는 ‘체험형 공포’를 꼽았다. 그는 “이 영화는 롤러코스터 같은 작품”이라며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구조가 아니라 계속 몰아붙이는 타입이다. 사운드나 촬영 방식, 장비들도 기존 공포 영화에서 쉽게 보지 못했던 요소들이 많다. 감독님이 숨겨놓은 장치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서지현 기자



J&J

세무회계법인 로펌

" 커피 한 잔 값까지도 절세 "

작은 비용까지 챙기는 꼼꼼한 절세

" 회계사·변호사 동시 무료 상담 "

각종 서류·계약·분쟁·소송, 변호사와 함께 대비

" 사업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파트너 "

비즈니스 라이선스 · 각종 행정·법률(리뷰) 서류까지 · 비용 \$0

비즈니스 전문

절세 전문가, 회계사, 변호사들이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1201 PACIFIC AVE 600, TACOMA, WA 98402
OFFICE: 253 400 7586 / 253 203 3137(8)



빌보드 폭격, 방시혁 두 가지 승부수 통했다

방탄소년단(BTS)의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이 미국 빌보드 차트를 그야말로 '폭격'하고 있다.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1위,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는 물론 앨범에 수록된 14개 트랙 중 13개를 '핫 100'에 진입시키는 이른바 '차트 줄 세우기'라는 전례 없는 대기록을 썼다.

K팝 역사에 획을 그은 이번 성공의 이면에는 앨범 제작 단계부터 치밀하게 계산된 방시혁 의장의 '두 가지 결정적 승부수'가 숨어 있다.

첫 번째 비결은 미국 본토에서 개최된 대규모 '송캠프'다. 송캠프란 수많은 프로듀서를 한국에 초청해 장기간 스튜디오에 머물며 음악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2000년대 이후 미국 주류 음악계에서는 제작비의 한계와 개인 작업 환경의 발달로 사실상 자취를

감춘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이라는 세계적인 IP가 컴백을 앞두고 송캠프를 열자, 자신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 미국의 내로라하는 작곡가들이 구름 떴처럼 몰려들었다. 이 과정을 통해 무려 200~300곡에 달하는 방대한 후보곡이 수집됐고, 그 중에서 가장 완벽한 트랙들만 유석을 가려내 앨범에 수록했다.

하이브가 꾸준히 주장해 온 이른바 'K팝 방법론의 수출'이 미국 본토에 완벽히 뿌리내린 결과로 분석한다.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하이브의 글로벌 걸그룹 캣츠아이(KATSEYE)의 성공 등이 맞물리며, K팝의 제작 시스템 자체가 세계 최고 수준의 결과물을 담보하는 보증수표가 된 셈이다.

두 번째 노림수는 '한국적인 것'을 전면에 내세운 전략이다. 팝의 문법을 좇는 대신, 가장 한국적

인 정체성을 세계 무대에 세련되게 풀어냈다.

타이틀을 '아리랑'으로 정한 것에 그치지 않았다. 수록곡 '에일리언스(Aliens)'에는 '중모리' 신발 벗기 문화, '김구 선생님'이라는 가사가 여과 없이 등장한다.

미국 NBC 인기 토크쇼 '지미 팰런쇼'에 방탄소년단이 실내용 슬리퍼를 신고 등장해 "한국에서는 집에 들어올 때 신발을 벗는다"며 한국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알리기도 했다. 또 구겐하임 미술관과 경복궁 콘서트 등 상징적인 장소에서 퍼포먼스를 펼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구겐하임 공연에서는 관객들에게 의자 대신 '킵 스위밍(Keep swiming)'이 적힌 방석을 제공하며 한국의 좌식·온돌 문화를 간접 체험하게 했다.

여섯 번째 트랙 'No.29'에는 국

보 성덕대왕신종의 타종 소리를 입히는 파격적인 시도를 더했다. 이는 곧장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상품 브랜드 '뭇즈(MU:DS)' 굿즈 열풍으로 이어지며 글로벌 품절 대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방 의장은 앨범 제작 당시 "여러분이 외국 어느 나라 사람인데, 자기 나라 출신의 슈퍼스타가 자기 나라 민요를 불렀을 때 소름 돋는 감동을 느끼지 않겠는가"라며 멤버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견은 적중했다. 현재 전 세계 스타디움에서는 피부색과 국적이 다른 수만 명의 팬들이 한국어로 '아리랑'을 떼창하는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호불호를 떠나 세계인이 굳이 찾아 듣고 즐기는 '관광지' 같은 앨범을 만들겠다는 방시혁의 노림수가 완벽하게 통한 것이다.

함상범 기자

BTS 컴백 앞두고 美 본토서 '송캠프' 개최 작곡가 몰리며 주옥 앨범 아리랑 신발 벗기 김구... '한국 정체성' 잘 살려



BTS, 페루·칠레·아르헨 공연 추가·월드투어 총 85회로 확대

북미·유럽 투어만으로 티켓 240만장 판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새 월드투어 '아리랑'(ARIRANG)에 남미 공연 3회차를 추가해 투어 규모를 총 85회로 확대했다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8일 밝혔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10월 남미 투어 가운데 페루 리마, 칠레 산티아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스 공연을 각 1회차씩 추가했다.

방탄소년단은 남미 투어를 통해 한국 가수 최초로 콜롬비아 보고타의 에스타디오 엘 캄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에스타디오 우니코 데 라 플라타 무대에 오른다. 칠레 산티아고 에스타디오 나시오날에서는 한국 가수 최초로 단독 콘서

트를 연다.

빅히트뮤직은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로 콜롬비아, 페루, 아르헨티나에 완전체로는 처음 방문한다"며 "그만큼 현지 음악 팬의 기대가 뜨겁다"고 전했다.

특히 페루 팬들은 공연을 앞두고 마추픽추 역사보호구역 '100만 그루 나무 심기'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공공 활동으로 방탄



소년단 맞이에 나서기도 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9일 고양중

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월드투어 '아리랑'을 시작한다. 스타디움에서 360도로 개방된 무대를 선보이는 이번 투어는 K팝 역대 최대 규모다.

현재 고양, 일본 도쿄, 북미·유럽 투어 등 총 46회 공연이 이미 매진됐다.

공연 기획사 라이브네이션은 "방탄소년단은 북미와 유럽 41회 공연만으로 약 240만장의 티켓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태수 기자



드림투어
Cruise & Travel
꿈같은 여행은 드림, 드림투어

31434 Pacific Hwy S Federal Way WA 98003
206-200-3113 페더럴웨이 H마트 건너편
(전화/문자 상담 가능)

TALK 카톡으로 빠른 상담하기 실시간상담
드림투어

최저가 항공권 **앗! 항공권이 인터넷보다 싸다!!**
KOREAN AIR DELTA ASIANA AIRLINES

● 크루즈 ● 항공권 ● 투어 ● VIP의전 ● 연수 ● 버스대절

선사 인증 크루즈 점유율 1위

알래스카 크루즈

BEST CHOICE
강력추천
시애틀 출발부터 도착까지 드림 인솔자 동반

생각만해도 가슴 설레이는 Best 유럽여행

Last Call 한정특가!!! 크루즈 ONLY

5/25 \$559	9/25 \$698
5/7 \$679	5/17 \$869

7/18 여성 룸조인 1명 가능!

크루즈로 만나는 위대한 땅, 알래스카 꿈꾸는대로 펼쳐지는 장엄한 빙하속으로!

5월3일 출발 9박 10일

서유럽 완전일주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바티칸)

- ▶ 전일정 4성급 호텔 숙박, 모든 옵션 포함
- ▶ 서유럽에서 맛봐야 할 요리, 특식제공
- ▶ 유럽의 지붕, 융프라우 등정
- ▶ 로마 안에 작은 도시 바티칸 시국 관광
- ▶ 이탈리아 로마 벤츠투어 포함!

8일 알래스카 크루즈. 그레이셔베이

시애틀 > 주노 > 스캐그웨이 > 그레이셔 베이 > 케치칸 > 빅토리아 > 시애틀

5월 9, 16, 23, 30 6월 6, 13, 20, 27 7월 4, 11, 18, 25 8월 1, 8, 15, 22, 29 9월 5, 12, 19

8일 알래스카 크루즈. 도스빙하

시애틀 > 케치칸 > 엔디콧암/도스빙하 > 주노 > 스캐그웨이 > 빅토리아 > 시애틀

5월 3, 24, 31 6월 7, 28 7월 28 8월 2, 9, 16, 30 9월 13

10일 알래스카 완전정복 크루즈

시애틀 > 앵커리지 > 마타누스카빙하 > 스워드 > 휘티어 > 허버드빙하 > 그레이셔 베이 > 스캐그웨이 > 케치칸 > 벤쿠버 > 시애틀

5월 20 9월 10

시애틀에서 떠나는 만인의 버킷리스트, 꿈같은 알래스카 크루즈 빙하 대장정!

여성 룸조인 1명 가능!

\$4,290 시애틀 왕복 항공,세금포함

국제 크루즈 연맹 인증 크루즈 전문 여행사 드림투어의 Partner 선사





tvN '세이렌' 끝낸 위하준

장르물보다 '로코' 새로운 얼굴 갈증

역할 위해 7kg 감량... 날카로운 인상에 집중 배우로서 성장한 작품... 감정선 디테일 발전 비슷한 장르의 반복으로 연기 한계 부딪혀 허술하고 귀여운 인간적인 면도 보여주고

배우 위하준은 최근 7kg를 감량했다. 한동안 운동을 꾸준히 하며 몸을 만들었지만, 정작 '세이렌'에 들어갈 때는 반대로 털어내는 쪽을 택했다. 차우석 캐릭터가 감정을 말보다 먼저 눈으로 보여줘야 하는 인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날렵해야 했다. 더 예민해 보여야 했다.

최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위하준은 tvN 월화드라마 '세이렌'을 마친 소회를 차분히 풀어냈다.

“저는 분위기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눈이라고 생각해요. 한동안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얼굴에 살이 붙고 눈이 조금 부어 보이더라고요. 차우석은 감정을 막 쏟아내는 인물이 아니잖아요. 상대를 꿰뚫어 보는 사람이고, 안으로는 늘 긴장하고 있는 사람이라 더 예민하고 날카로운 인상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외형만 바뀐 건 아니었다. 위하준은 이번 작품을 두고 “배우로서 공부 많이 된 작품”이라고 했다. 차우석은 냉철한 조사관으로 출발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감정의 폭이 커진다.

동생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마주하고, 설아(박민영)를 향한 감정도 점점 더 복잡해진다. 위하준은 이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고 털어냈다. 특히 눈물과 슬픔의 강도가 커지는 후반부에선 배우로서 숙제를 다시 만난 기분이었다고 했다.

“감정의 폭이 큰 인물을 연기하는 게 생각보다 더 어려웠어요. 특히 저는 눈물을 쉽게 흘리는 편이 아니라서 더 그랬고요. 후반부로 갈수록 애절한 감정, 슬픈 감정이 필요한 장면이 많았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싶을 때도 있었어요.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면서 저 나름대로 많이 배웠어요.”

‘세이렌’은 장르적으로도 쉽지 않은 작품이었다. 로맨스 스릴러라는 장르 자체가 감정과 긴장을 동시에

끌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오징어 게임’에서는 감정을 많이 갖추되 표현은 줄여야 하는 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다양한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갈증이 있었죠. 그런데 차우석은 액션도 있고, 능청스러운 면도 있고, 냉철한 면도 있고, 멜로도 있잖아요. 한 인물 안에 여러 결이 있어서 배우로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박민영과의 호흡도 작품의 중요한 축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밀어내는 듯하면서도 강하게 끌리는 관계를 그려야 했다. 위하준은 박민영을 두고 “눈과 감정이 워낙 좋은 배우”라고 표현했다. 특히 멜로 장면에서는 감정선의 디테일을 많이 배웠다고 했다.

“누나가 워낙 눈과 감정이 좋아서, 후반부로 갈수록 애절해지고 절절해지는 감정에 저도 몰입이 잘 됐어요. 멜로 장면에서는 아이디어도 많이 주셨고요. 정확한 지점에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신기하기도 했고, 많이 배웠어요.”

한동안 화제가 됐던 키스신 비하인드도 웃으며 돌아봤다. 박민영이 한 예능성 콘텐츠에서 “숫 들어가자마자 입술을 잡아먹더라”는 식으로 표현해 웃음을 안겼던 장면이다.

“그 장면은 제가 먼저 도발하고, 설아가 다시 도발하고, 제가 또 받아치는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키스신 경험이 많지 않아서 걱정이 더 컸어요. 누나가 현장에서 장난도 치면서 편하게 해주셨고, 저는 연기에 집중하려고 나름 열심히 했는데 재밌게 받아주신 것 같아요.” 작품을 마친 지금, 위하준은 오히려 더 다른 얼굴을 보여주고 싶다는 갈증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로코’를 여러 번 강조했다. 스릴러의 긴장을 지나, 로코의 온도로. 위하준이 다음에 보여줄 얼굴이 궁금해지는 이유다.

“로코를 정말 하고 싶어요. 스릴러나 복합 장르도 좋지만, 이제는 저라는 사람이 더 잘 보일 수 있는 작품을 해보고 싶어요. 장르적인 작품을 많이 하다 보니 연기적으로 부딪히는 한계도 느끼게 되더라고요. 의상도 비슷하고, 말투도 일상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다음에는 좀 더 밝고, 편하게 볼 수 있고, 인간적인 면이나 허술한 면, 귀여운 면까지 느낄 수 있는 작품을 만나고 싶어요.”

김현덕 기자

사진 | 엠에스팀엔터테인먼트-tvN

신곡 '쏘 큐트'로 돌아온 화사 “작고 귀여운 것에서 힘 얻길”

“권태로운 일상 속에서 마주한 작고 귀여운 것에서 얻는 힘을 담고 싶었습니다.”

가수 화사가 디지털 싱글 '쏘 큐트(So Cute)'를 발표하며 가요계에 복귀했다. 지난해 10월 발표해 그야말로 화사 돌풍을 일으킨 '굿 굿바이(Good Goodbye)' 이후 약 6개월 만의 컴백이다.

'쏘 큐트'는 경쾌한 댄스 팝 장르로, 그간 화사가 무대 위에서 보여준 강렬한 카리스마와는 또 다른 편안한 매력을 담고 있다. 화사는 이번 곡에 대해 “우리들의 건조한 일상 속에서 힘이 되어주는 게 작고 하찮은 귀여움인 것 같다”며 “그 모습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얼어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지점을 준다. 행복은 정말 별거 없는 것 같다”고 애정을 담아 소개했다.

화사는 전작에 이어 이번에도 작사와 작곡에 직접 참여하며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특히 피네이션의 수장 사이와 공동 작사를 진행해 눈길을 끈다. 화사는 “노래에 영어 가사들이 들어가서 이 부분을 정말 많이 고민했다”며 “(사이)오빠와 상의를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다”고 작업 비하인드를 전했다.

곡의 메시지에는 성인으로서 느끼는 내밀한 고민이 녹아있다. 화사는 “무서움에서 시작된 곡”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는 것들도 많아지는데, 가끔 그 속에서 어린 아이 같은 공포감을 느낄 때가 있다”며 “몸만 어른일 뿐 저도 어른이 처음인 사람이었다” 그런 혼란한 마음속에서 작고 귀여운 빛줄기 하나로 나아가는 듯한 모습을 곡으로 표현하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전작인 '굿 굿바이'가 퍼펙트 올킬(PAK) 750회라는 대기록을 세운 만큼 차기작에 대한 부담이 있을 법도 하지만, 화사는 의연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굿 굿바이’는 두 번은 쓸 수 없는 곡이라 생각해서 잘 담아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면서 “다음 챕터는 또다시 0에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하려 한다”고 전하며, 수치적인 목표보다는 대중에게 힘이 되는 노래가 되길 바란다는 마음을 덧붙였다.

무대 밖에서는 대중과 한층 친근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MBC 어린이 프로그램 '뽀뽀뽀 좋아좋아'의 인기 코너 '마음약국'에 출연해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촬영 현장에서 화사는 뽀미언니, 뽀식이 삼촌과 함께 동화책을 읽고 노래를 부르며, 놀이터에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즐기는 등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화사는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며 잘 알았던 '뽀뽀뽀'에 직접 출연하게 돼 감회가 무척 새롭다”며 “아이들과 함께 촬영하면서 밝고 순수한 에너지를 듬뿍 받아 간다”고 밝혔다.

화사의 행보는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로도 이어진다. 오는 9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음악 페스티벌 '록인리오(Rock in Rio)' 무대를 앞뒀다. 화사는 “언제나 그랬듯 무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할 예정”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승록 기자 roku@sportsseoul.com



동네방네 줄광고

구인

- 한의사 또는 자연의학의 (Acupuncturist or ND)모십니다 wholemedic@gmail.com ☎ 425.640.7585
- Ace 보험 에이전트 모집(페드렐웨이) OT, Bonus, Dividend 있음 아래와 같은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 전문직을 원하시는 분 - 지식과 경험의 성장을 원하는 분 - 남을 도와주기를 즐거워하는 분 - 안정적 성장을 원하는 분 전화 (253)442-6222
- 아마존 딜리버리 구인 켄트 지역, 영어 필수, 차량 제공 6:00 AM 시작 \$21.25/H (시작 페이) ☎(253) 569.0230, (425) 449.6625
- 세탁소 구인 페더럴웨이에 위치한 SUN세탁소에서 PRESS하실분 구합니다. 유경험자 ☎ 253.332.5388
- 타코마 신신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하실 캐쉬어/세일즈/창고 직원 원합니다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이메일 : twin0418@aol.com ☎ 253.582.2975
- 조선용 보험 영어, 한국어 가능자 컴퓨터 엑셀 사용 가능자 함께 성장 하실 직원을 구합니다 ☎ 425.951.9210 / 린우드 지역
- SYS 건축회사에서 오피스 매니저 구합니다. North 지역 사시는분 컴퓨터와 이중언어 가능하시는분 ☎ 206.353.7955
- 당구장 구인! 페더럴웨이에 위치한 태양당구장에서 일 하실분을 구합니다. ☎ 719.799.0840
- 타코마 신신백화점 매장에 근무하실 세일즈를 구합니다. E-Mail (twin0418@aol.com) 또는 이력서를 가지고 내사 바람 ☎ 253.582.2975
- 싸이딩 기술자 헬퍼 구합니다 성실하게 오래 함께 일하실분 구함 웨더렐웨이, 전화 문의 환영합니다 ☎ 253.397.5678
- 웨더렐웨이 카카투스치킨 주말 토요일 일요일 PM 4:30~11시 ☎ 206.302.9626

렌트 / 리스

- 마켓 스시 매매 (2만 5천) 주변 10만 세대 입주중. 지난 3년 동안 년 5-6만 순수입, 적은투자, 쉬운운영, 1인 운영가능. 타코마에서 20분거리. 오후 2시에는 문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6.914.0561
- 퓨얼업 중심가, 메르디안길 대형 노인 요양소 앞에 위치한 다용도 빌딩, 각종 의료원 (치과, 한의원, 마사지, 변호사, 부동산, 사무실 등)과 단체 행사 모임, 교회 예배 장소 등에 최적 ☎ 206.383.7716

매매

- 야외용 그릴,야채 말리는것, 미라클터치, 오디오
- 아주좋은거, 기타 주방용품 거의 새것 싼값에 팝니다. 253-861-8310
- 드랍샵 매매 시애틀 다운타운에 위치 60층 빌딩이 2개 있는 건물안에 드랍샵이 위치 순수익: 월 5천불 206-317-9973
- 자동차 매매 2008년형 Benz 350 202 k mile Gold Color 상태양호 \$6,000 Federel Way, 33120 Pacific Hwy #2 ☎ (719)799-0840

기타

- 영어회화 지도 (사우스 지역만) 한국말 할 수 있는 미국인 영어교사 Auburn, Federal Way, Kent, Taoma, Renton, Bellevue 안전을 위해방문시 마스크 착용합니다. ☎ (253) 561-5824 John Stecker
- 취미생활 하고 싶으신 분 찾습니다. 드럼, 베이스기타, 색소폰 각각 1분씩 장소: 페더럴웨이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tcg2291@gmail.com
- [조이플 선교 합창단 단원모집] 단장: 문창선 지휘: 박상영 반주: 김지영
1.모집 대상:성인 개신교 신자, 남녀
2.파트별: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3.연습일:
*오전반: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까지
*오후반: 한달에 한번 주일 오후 3시30분~ 5시30분까지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참석가능)
4.연습장소: 타코마 삼일교회(권상길목사시무)
5.주소:7461 S Verde St, Tacoma,WA 98409 (타코마 마운트 타호마 고등학교옆)
*가입 문의:253-495-4595 단장: 문창선 장로

- 벨뷰 볼룸댄스 동호회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Briora Dance studio 2260 회비: \$40/4주 ☎ (206) 227-5001 민수지
- 인생이 달라지는 독서 모임 좋은 책, 깊은 대화, 따뜻한 사람들 함께 읽고, 함께 나누는 시간 책사공에서 시작해 보세요 장소: University Place Library 시간: 매달 셋째 주 금요일 오전 11:00 - 오후 4:00 문의: 571-351-7663
- 국악한마당 수강생 모집 서북미 지역에서 한국의 전통음악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국악한마당에서 민요와 장구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수강일: 매주 화요일 오후 6:30, 토요일 오후 2시 * 장소: 1139 Browns Point Blvd NE Tacoma, WA 98422 ☎ (253) 205-9569
- 페더럴웨이 유스 심포니 단원 모집 오디션 후 발탁, 한국 순회 공연, 연중 3회 공연. 대상: 12살~고등학생까지 ☎ (425) 647-3847
- 탈춤 강습 (강사: 송파산대놀이 이수자) 국가 무형문화재 제 49호 송파산대놀이 시애틀 지부 전통 탈놀이 및 장구를 무료로 가르쳐 드립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9:30 장소: Prestige Dance Studio 33639 9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 (206) 313-7696
- 무료 영어 회화 강습 미국인과 한국인 선교사에게 배우는 무료 영어 회화! 일상 영어회화부터 시민권 시험 준비까지 맞춤형 1대1 수업을 진행합니다. 선생님과 수업 약속을 잡기 위해 아래 번호나 페이스북 페이지로 오늘 연락주세요! 줌(ZOOM) 등의 비디오 수업과 만나서 하는 과외 수업을 제공합니다. (방문시 마스크 착용합니다.) 전 시애틀 지역 한인 대상 페이스북: @EnglishConnectSeattle
- 한인스노미시노인회 빙고, 라인댄스, 요가, 장기, 바둑, 합창, 한국무용, 탁구, 건강세미나. 점심제공. 월, 금요일 모임. 23000 Lakeview Drive mountlake Terrace WA 98034 ☎ (425) 260-8460
- 시애틀 신학대학원 대학교 학생 모집 초교파적 정통 복음주의 신학교로 워싱턴주 정부에 등록된 학교입니다. 학위 프로그램: 평신도 성서대학, 신학사, 목회학석사, 신학석사, 목회학박사, 신학박사 현재 학기중이며 수시 입학문의 상담합니다. ☎ (206) 915-9064 Kenmore ☎ (206) 778-6596 Federal Way

줄광고 \$40/4회 206.779.5382

BOX 광고란

줄광고 \$40/mo. | 박스광고 \$80/mo.

문의 : 206-779-5382

공항 Pick Up

공항 Pick Up 또는
라이더 필요하신분
어디든지 갑니다

253-337-7209

한국식당 장비판매

바베큐 테이블 set 신제품 20개
(마블10개/ 체리10개),
냉면 육수 냉장고, 스키 케이스 5ft,
파저리 기계, 등.. 한국바베큐식당에
필요한것 모두 있습니다.

253-754-5243

Shin's Wellbeing Food

shinwellbeingfoods.carrd.co

김치 Specialist
무설탕, NO MSG,
한국 고추가루사용

천연재료만으로 맛을 낸
믿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김치 배달합니다.

206-887-3088
(카톡주문 가능)

하우스방 렌트

켄트 골프코스 뒷문에 위치한 조용한
주택가 하우스방 렌트합니다.
여자분 환영

253-374-0458

(구인)족발전문식당

에드먼즈 부한 mall
족발전문식당
순대 경험 있으신분 구합니다.

206-370-0526

차량 판매

2020년 형 렉서스 RX450h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합니다. 원래
오너가 끄게 타던 무사고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타이어
새것으로 교체한지 1주일밖에 안
됐음. 색깔은 흰색

206.670.8654

구인

신신백화점 매장에서
주말 근무 가능한
캐쉬어(Cashier) 원합니다.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253.582.2975

페더럴웨이 경치좋은 레돈도 비취에 있는 1층 전체 렌트

화장실1, 방1, 거실
인터넷 설치 완비
금연자 환영. \$950/M.

213-819-2556

차량 판매

2014년 형 렉서스 CT 200h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합니다.
원래 오너가 끄게 타던 무사고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색깔은 빨간색

206.670.8654

구인

한국어/영어 구사 가능한
리걸 어시스턴트 구함
401k 및 건강보험, PTO 제공
2년 이상 경력자 우대
이력서 보낼곳: Justin@parkchenaaur.com

253-839-9440
(박쉬나 법률)

주엘 헤어살롱

머리숱이나 머리 길이 연장,
스트레이트 파마, 꼬머리(Braiding)
가발(100% human hair) 제작 및 판매
영구 문신(눈썹, 아이라인)
인셀덤 스킨케어 판매

253-355-2597

과 외

SAT 1,2 / PSAT / ACT / IVY League UC/ UW 진학전문 지도
(9-12학년) <University Place, Tacoma, Puyallup>

253.878.1211

아파트 렌트

▶방1, 큰화장실1
유틸리티 \$150 / 렌트비\$1,500

▶방2, 화장실1
유틸리티\$150 / 렌트비\$1,500

▶방1, 화장실1
유틸리티 \$100 / 렌트비\$1,200

신축, 좋은 로케이션
(타코마 부한 바로 옆)

253-302-7095

매 매

YELM 시티
다운타운에 위치한
세탁소 매매합니다.
월 매상 : \$ 15,000
렌트비 : \$2,200
매매가 : \$12만

360.528.9589

J&J CLAIMS 지원자 모집

현재 J&J CLAIMS
(www.carcrashwa.com) 팀에
합류할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모집 직무:
개인 상해 (자동차 사고 등) - 2명
일반 소송 (법률 보조) - 1명
- ▶근무지: 다운타운 타코마 (IRS 빌딩 6층)
- ▶자격 요건: 영어/한국어 가능
기본 컴퓨터 활용 능력 (MS Word, Excel 등)
- ▶근무 시간: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00 - 오후 5:00
- ▶근무 환경: 실내주차장 제공,
깨끗한 주변, 안전한 근무 환경
- ▶페이조건: \$22~\$52.08 +
- ▶업무 내용: 고객 (병원 등)과의
소통/병원 및 고객 관련 문서 관리 및 정리

지원 방법: 이력서 또는 자기소개서를
sung@carcrashwa.com으로
제출해 주세요.

조선용보험에서 함께 성장하실 에이전트 및 office assistant를 찾습니다.

영어, 한국어 사용
컴퓨터 사용 (Excel, Word)
메디케어, 워싱턴 헬스 플랜 중점
취업가능자 (full time/ part time)
베네핏 가능, 영문 이력서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5.951.9210
justinc@evergroup.us

4713 168th St SW Ste 103 Lynnwood, WA 98037

주유소 파트타임

(주 3~4일)
일하실 직원분 구합니다.
디모인스(Sea Tac 근처)지역

206-334-7532(전화,문자)

박스광고

\$80 / 4회

206-779-5382

버클리 칼럼 | 교통안전 연재 시리즈



글: 제임스 리
버클리 & 어소시에이츠 법률사무소 한인 사무장
(WWW.Buckleylaw.net, 206-909-8289)

뒤에서 받았을 때 대처 요령

운전 중 가장 흔히 발생하는 사고가 바로 추돌 사고, 특히 뒤에서 들이받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라 해도, 순간의 당황과 잘못된 대응으로 피해자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직후부터 사후까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1. 사고 직후 □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
□ 비상등 켜기: 즉시 비상등을 켜서 2차 사고를 막습니다. □ 차량 이동 여부 판단: 큰 충격으로 차량이 심하게 손상됐다면 움직이지 말고 경찰과 견인차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경미한 사고라면 도로 한쪽으로 차를 옮겨 다른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내리기 전 주의: 급하게 문을 열면 2차 사고 위험이 있으니, 주변 차량 상황을 확인하고 조심하 내려야 합니다.
2. 부상 확인 □ 즉각적 · 지연성 증상 모두 주의
□ 운전자와 동승자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 의식이 없거나 출혈이 있으면 즉시 911에 신고해야 합니다.
□ 편타성 손상(Whiplash): 목이 뒤로 젖혀지는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후유증입니다. 사고 직후에는 멀쩡해 보여도 몇 시간 뒤 목, 어깨, 허리 통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괜찮다”는 말보다는, 가벼운 통증도 기록해 두고 의료진에게 반드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경찰 신고 □ 기록이 곧 증거
□ 사고가 크든 작든 911 신고로 경찰을 부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찰 리포트에는 사고 시간, 장소, 차량 번호, 운전자 진술, 목격자 진술 등이 남습니다. □ 특히 미국에서는 이 리포트가 있어야 보험사 간 협의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 만약 경찰이 “경미하다”며 오지 않는 경우, 온라인 리포트를 제출할 수 있는 웹사이트(예: 워싱턴주 WSP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4. 증거 확보 □ 스마트폰이 최고의 무기
□ 사진 촬영: 차량 파손 부위, 양 차량의 위치, 도로 상황, 신호등 상태, 브레이크 자국 등을 찍습니다. □ 상대방 정보 확보: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보험 카드 사진을 남겨 두세요. □ 목격자 진술: 사고 현장을 본 사람이 있다면 간단히 이름과 연락처만 받아 두어도 큰 도움이 됩니다. □ 대화 기록 보관: 상대방이 “내가 잘못했다, 보험 처리해 주겠다.”라고 말한 경우, 가능하다면 문자로 확인받아 두면 좋습니다.
5. 의료 조치 □ 진료 기록이 곧 보상 근거

- 사고 후 통증이 없어도 반드시 병원이나 응급실 진료를 받으세요. □ 치료 기록이 있어야 보험사에서 의료비를 제대로 보상합니다.
□ 척추 · 목 · 허리 통증은 시간이 지나서야 드러나므로, 사고 당일 진료 기록이 추후 법적 근거가 됩니다. □ 카이로프랙틱 치료, 물리치료도 추후 필요할 수 있는데, 초기 진료 기록이 없으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6. 보험 처리 □ 나의 보험사부터 통보
□ 내 보험사에 즉시 연락: 과실이 상대방에 있더라도, 먼저 내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보험사는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필요 시 렌터카 제공, 병원 안내, 차량 수리 과정을 지원합니다. □ 상대방 보험사에서 바로 연락이 올 수 있는데, 이때는 신중하게 답변하고, 가급적 모든 통화 · 이메일을 기록해 두세요. □ 상대방 보험사 조사관이 과실을 축소하려는 경우도 있으므로, 성급히 “합의”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법적 대응 □ 분쟁 가능성에 대비
□ 사고 피해가 크거나, 상대방 보험이 불명확하거나, 치료비 보상에 이견이 생긴다면 변호사 상담을 고려하세요. □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성공 보수(Contingency Fee) 형태로 교통사고 사건을

말는 경우가 많□ 아 초기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합의금을 성급히 받지 말고 전문 상담을 거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사고 후 관리 □ 몸과 마음 챙기기
□ 육체적 충격뿐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PTSD, 불안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운전 시 긴장감, 악몽, 두통 등이 지속되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으세요. □ 보험 보상에 정신적 피해(통증 · 고통 보상, Pain & Suffering)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뒤에서 받은 교통사고는 대부분 피해자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즉시 기록하지 않거나, 의료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선부른 합의로 인해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 확보 → 경찰 신고 → 증거 수집 → 의료 진단 → 보험 통보 → 필요 시 변호사 상담
이 여섯 단계를 기억한다면, 사고의 충격 속에서도 권리를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회차(16편)에서는 “뺑소니 사고 대처 요령”을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코스트코 "5달러 회전구이 통닭 살모넬라 위험 없다"

코스트코가 자사 인기 상품으로 5달러에 판매하는 회전구이 통닭(로티서리 치킨)에 살모넬라 감염 위험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이같은 논란은 미주리주 거주 소비자 리사 테일러가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시작됐다. 소송에서는 코스트코의 네브래스카주 가금류 생산시설인 링컨 프리미엄 폴트리에서 살모넬라 오염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코스트코 측은 호인단은 법원 제출 자료를 통해 “로티서리 치킨은 완전히 익혀 판매되기 때

문에 살모넬라균이 제거된다”며 소송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살모넬라는 주로 덜 익힌 육류나 달걀 등을 통해 감염되는 세균으로, 복통과 설사 등 위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가금류를 적정 온도로 충분히 조리할 경우 감염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코스트코 측은 원고가 실제로 로티서리 치킨 섭취로 인해 건강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비영리단체의 분석 자료를 인용해 해당 생산시설이 미 농무부(USDA)의 살모넬라 평가 기준에서 낮

은 등급(Category 3)을 받은 비율이 높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스트코는 USDA 등급은 닭고기의 외관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일 뿐 세균 위험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스트코는 올해 1월에도 로티서리 치킨에 보존료가 포함됐다는 또 다른 소송에 직면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은 5월 11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시애틀 지역을 포함해 많은 한인 가정에서도 코스트코 로티서리 치킨은 가성비 높은 인기 식품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논란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조이시애틀뉴스>



Federal Way
병원 스페이스 렌트
253-941-6779
chachiropractic@gmail.com

Office space Rent for
L.Ac, DPT, LMT or other healthcare professionals
3Tx rooms, Reception area , restroom
Ask for Lease special !

기자칼럼



박미영

박미영 기자가 본 세상 이야기
judy0927@hotmail.com

분노의 유효기간

하루를 보내면서 순간순간 화를 내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한다. 음식 주문에 다른 메뉴가 나왔거나 여유롭게 출발했음에도 교통 체제로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했거나 상대방의 태도에 불끈 화가 나 과도하게 목소리를 높였던 경험은 누구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냥 지나쳐도 될 일에 발끈할 때가 있다. 분노의 유효기간은 생리학적으로 길어야 15초에 불과하다고 한다. 짧은 순간을 참지 못해 적지 않은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순간 15초를 참고 넘긴다고 해도 잠자리에 들어서도 화가 나서 잠이 잘 오지 않을 때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작은 일에서 무수히 화를 경험하면서 살게 된다. 때때로 스스로가 감당이 안 되는 큰 분노가 가슴속 깊은 곳에 박혀 있기도 하다. 나아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닌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분풀이를 하는 경우도 있다.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부딪히고 너무나 쉽게 우리는 화를 낸다.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도 있는데 몇 년이 쌓인 분노는 인생의 현재와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되새겨야 한다. 오늘 하루의 크고 작은 섭섭함과 하루의 분을 다 풀고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스웨덴의 어느 언어학자는 가장 심한 욕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분노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면 화가 풀리면서 인생도 풀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화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므로 무조건 인내로 억제하기보다는 분노의 유효기간을 해가 지기 전으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분노를 오래 품으면 분노조절 장애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은 자기 손해이기 때문이다. 살면서 화를 표출해야 할 때가 발생하면 지혜가 필요하다. 화를 내더라도 최대한 예의 갖추고 최소한으로 작게 화를 내도록 노력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미용칼럼



원장 유명숙

볼 처짐(심술보) 방지

볼 처짐을 일명 심술보라고도 하고 불독살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입가와 양볼 사이가 늘어져 아래로 불룩하게 처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것이 생기면 선량한 분도 심술이 많아 보여 일명 심술보라고도 불려지게 됐네요. 그런데 이 볼 처짐(심술보)는 노화의 첫걸음으로 찾아오는데요. 네 바로 지구의 중력으로 제일 살이 부드럽고 근육이 적은 양 입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랍니다. 네 만약 입술 양옆에 살이 적으면 위로 광대뼈 아래로 턱뼈 사이에 공간이 너무 커서 해골같이 푹 패여 조물주께서 연한 살로 채우시고 만약에 이 살에 단단한 근육으로 조여 있으면 입을 열 수가 없어 입을 열고 음식을 씹을 수가 없네요. 그 대신 중력에 제일 영향을 받는 단점도 있네요. 그럼 이 볼 처짐을 아주 완행으로 할 수는 없나요? 네 바로 자외선은 지나 연약한 양볼에 영향을 끼쳐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단단히 조여주는 엘라스틴을 파괴해 바람 빠진 고무풍선같이 아래로 처지게 만드니 가능한 햇빛을 피하시고 꼭 햇빛에 노출 시에는 모자, 선글라스 착용하시고 꼭 두껍게 선블락 로션을 사용하세요.

다음은 세안 시 이마에서 아래로 자주 잡아 내리는데 낙숫물에 바위에 구멍이 나듯 이리 세안하시면 심술보 확장에 일등 공신이니 아래서 위로 밀며 세안을 하세요. 특히 현대인들은 썬폰 보는데 시간을 많이 초래하는데 거북목으로 보면 볼 처짐이 가속화된답니다. 그리고 마사지를 너무 세게 원하시는 분들도 콜라겐, 엘라스틴 파괴의 한 원인이 되니 부드럽게 하시거나 받으세요. 그런데 이미 불살이 많이 쳐져 있으면 카이벨라(윤곽주사) 주사를 맞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울쎄라 리프팅 같은 Hifu 시술도 도움이 되고요. 단단한 불살은 젊고 싱싱해 보이고 불살(심술보)가 생기면 늙고 무기력하게 보이니 자외선 방지, 위로 밀어 세안하기, 부드러운 마사지로 이 불살 늘어짐을 방지하여 젊고 생동감 있게 사세요. 거울 보고 한탄하지 마시고 정기적인 얼굴 마사지도 해보시고 생동감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h. 253.306.4268 유명스킨: 유명숙

세상의 모든 소식 Haninsosik.com

해외 동포 특별가 성형 패키지

눈 꺼풀 + 눈 밑 처짐.....	360	만원	코트대 + 코끝	350	만원	
얼굴 처짐(목 처짐 포함).....	700	만원	지방흡입(복부)	500	만원	
가슴(보형물에 따라 가격 상이).....	600 ~ 1,000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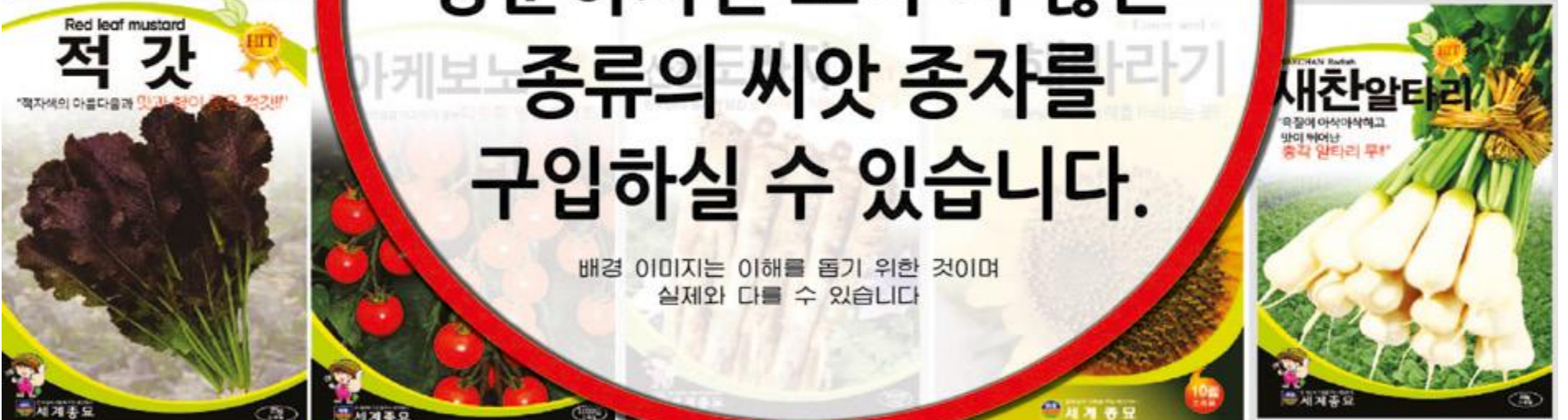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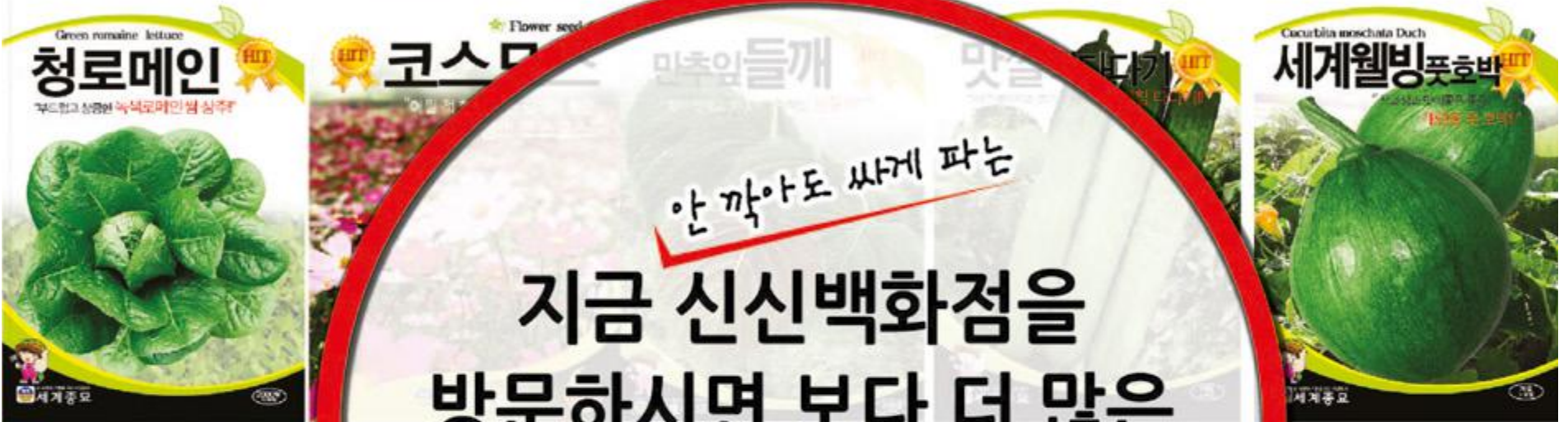
* 상담 결과에 따라 수술 방법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휴함을 통한 예약 시 이벤트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 내용에 따라 휴함에서는 숙박 혜택 및 추가 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미주워싱턴 본부장
에스더 나

Tel : 206-779-5382
이메일 : skgid7700@gmail.com

씨앗이 왔어요!! 배물리 보세요!!



안깎아도 싸게 파는

지금 신신백화점을 방문하시면 보다 더 많은 종류의 씨앗 종자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배경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신백화점 (253)582-2975 월-토: 10am-7pm 일: Closed
 8726 South Tacoma Way Lakewood WA 98499

GMART www.hmarts.com

7 DAYS SALE

APR 17TH - APR 23RD, 2026

일주일 내내 매일할인
(야채부/정육부는 4일만 진행)



봄바람 %
SALE

어디서든
맛있는
K-스낵



6 can / 335ml
팔도 이천햄쌀 비락식혜 **7⁹⁸** PK



400g, 500g 2종
우리식품 명미당떡 **5⁹⁸** EA



2pk/160g 3종
한상 점보삼각김밥 **2⁹⁸** EA

HOT DEALS



ONLY 4 days 금/토/일/월
타미망고 **10⁹⁸** BOX



ONLY 4 days 금/토/일/월
진공팩 소고리냉동 **7⁹⁸** LB



1.81kg
레몬랜드 맛김치 **9⁹⁸** PK



2LB
POLARBIRD 백합조개 **4⁹⁸** PK

PRODUCE SALE 야채

ONLY 4 days 금/토/일/월



1LB 딸기 **2⁴⁸** PK



2LBS 골드너겟만다린 **3²⁸** BAG



영코코넛 **2⁷⁸** EA



네이블오렌지 **0⁹⁸** LB



2LBS 골든/그린키위 **6⁹⁸** PK



오리 만다린 **2⁷⁸** LB



청경채 **1⁴⁸** LB



150g 해물버섯 **0⁷⁸** EA



페르시아오이 **1²⁸** LB



양배추 **0⁸⁸** LB



통마늘 **1⁴⁸** EA



그레이호박 **0⁷⁸** LB

MEAT DEALS 정육

ONLY 4 days 금/토/일/월



탕갈비 **8⁹⁸** LB



USDA CHOICE II
낙엽살 스테이크 **10⁹⁸** LB



NEW
볶음용 등심 **4⁹⁸** LB



NATURAL PORK
항정살 **7⁴⁸** LB




NATURAL PORK
돼지목살 불고기 **4⁹⁸** LB



NATURAL PORK
Half Cut 생삼겹살 **6⁴⁸** LB

Available at HMART and GMART except the 2nd & Pine and UW Seattle store. Valid while supplies last. Quantities limited to stock on hand. Images may not be the same as shown. Copyright©H-MART corp. All Rights Reserved. 본 프로모션은 HMART와 GMART에서 적용되며, 2nd&Pine

GROCERY DEALS 식료품

 <p>20LB (HOMAI) 백미 13.98 BAG</p>	 <p>15LB (초립종이) 경기미 현미 9.98 BAG</p>	 <p>340g (오뚜기) 프리미엄돈까스 7.98 EA</p>	 <p>6pk/75g (농심) 6컵라면 4종 6.98 BOX</p>	 <p>500g, 603g (한상) 된장찌개 김치찌개 4.98 EA</p>	 <p>100lbs/11.5g (이티아) 모카블렌드 골드블렌드 11.98 BOX</p>
 <p>12pk/210g (오뚜기) 맛있는 오뚜기밥 11.98 BOX</p>	 <p>680g (홍아) 짜장밥 5.98 EA</p>	 <p>4pk 13.5oz~16.5oz (풀무원) 라면 짜장, 짬뽕 4종 5.48 EA</p>	 <p>520g (고래사) 어묵떡볶이 4.98 EA</p>	 <p>840g (고래사) 전통 고치어묵 11.98 EA</p>	 <p>500g (그린햇) 통살 오징어튀김 5.98 EA</p>
 <p>비닐장갑 포함 1.68kg (한상) 양념소스 2종 기획 4.98 EA</p>	 <p>90g (미담) 엄마의이 야기 육수한알 해물/야채 5.98 EA</p>	 <p>5종 170g, 190g (한상) 찢갈 4.48 EA</p>	 <p>140g (동원) 더킹크랩스 3.48 EA</p>	 <p>640g (성우) 어장금 가자미순살 11.98 EA</p>	 <p>227g (초립종이) 황태채 9.98 EA</p>
 <p>12pk/5g (초립종이) 웰빙김3종 기획세트 3.98 EA</p>	 <p>320g (대림선) 주부초밥장 3.48 EA</p>	 <p>480g, 520g (오뚜기) 3종 붕어빵 6.98 EA</p>	 <p>4pcs/360g (삼립) 서울카스테라 3종 9.98 EA</p>	 <p>510g (롯데) 티코 밀크/다크 5.98 EA</p>	 <p>1.5L (통아오츠카) 포카리스웨트 2.98 EA</p>



 <p>17.99oz, 18.41oz (아미풍) 흥도과자 옥수수빵 5.98 EA</p>	 <p>100g (그린햇) 알군밤 0.98 EA</p>	 <p>15pk/690g (오리온) 고래밥 짜장라면맛 10.98 BOX</p>	 <p>160g (청우) 플랑 딸기/파인애플 2.48 EA</p>	 <p>180g (롯데) 배배로 4종 3.98 EA</p>	 <p>25pk/63ml (매일) 바이오필 요구르트 3종 3.48 EA</p>
--	--	---	--	--	---

SEAFOOD SALE 수산

 <p>170g (청해거상) 냉동전복 3피 11.98 PK</p>	 <p>3LB (자갈치로맨) 갯가자미 17.98 PK</p>	 <p>2LB (KPF) 민물새우 22.98 PK</p>	 <p>2.2LB (DAIFUKU) 종합어묵 6.98 PK</p>
---	---	---	--

DELI SPECIALS 반찬

 <p>250g (레몬랜드) 감자샐러드 3.78 PK</p>	 <p>65g (레몬랜드) 건새우양념볶음 3.98 PK</p>	 <p>125g (레몬랜드) 한국산 서리태콩조림 2.78 PK</p>	 <p>220g (레몬랜드) 콩고물양금인절미 3.98 PK</p>
--	--	--	--

KITCHEN & HOME DEALS 생필품

 <p>57cm/11호 (리빙) 스텐양분 29.28 EA</p>	 <p>18L (UNOVE) 샤워수건 17.98 EA</p>	 <p>(UNOVE) Water Essence Mist 13.78 EA</p>	 <p>(한솔) 침소 거실화 9.48 EA</p>
--	---	---	---

NEW ARRIVAL SHOP NOW!

한만두 고메투명함 물망울 만두 3종

오만두 팝콘만두

Kimchi Skinny Dough

Small Octopus Skinny Dough

Web-foot Octopus Dough

OPEN 365 DAYS 8AM - 9:30PM

MORE DEALS IN-STORE!
VISIT YOUR NEAREST LOCATION

Bellevue | Federal Way | Lynnwood | Redmond
Tacoma | Ballard | Lynnwood Gmart (8am-9pm)

*상품 디자인과 색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UW and Seattle (2nd & Pine) stores are excluded from the sale.